(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4 1982년 2월2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February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디트로이트 교포의사부인 납치당해

몸값물고도 被殺

차고속 플라스틱상자에 총맞은 시체로 발견

디트로이트시 북쪽 1백마일 지점 새기노시에 살고 있는 의사 안경식씨(일반외과, 세인트 류크병원 근무)의 채시진(36)씨가 지난 10일 상오 1만달러를 요구하는 범인에게 납치당한 후 12일 새벽 총탄에 살해된 시체로 발견됐다. 안씨의 시체는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진채 안씨 소유의 단층 듀플렉스 하우스(5687 Chapel Dr. Saginaw) 차고에서 발견되었으며, 목뒤에 22구경 소총 1발을 맞았다.

FBI는 안씨살해범으로 지난3년전 부터 안씨 소유 듀플랙스 하우스에 세들고 있는 백인남자 리처드·C·포웰(39, 마틴세비자동차 딜러 메카닉)을 12일 새벽 3시 그의 집에서 체포했다.

FBI는 10일 안씨의 납치사건을 신고받은 후 디트로이트지역에서 요원을 증파하여 약 12명의 스왓팀을 구성, 11일밤 범인이 안씨 인질금 1만달러를 모처에서 인수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12일 새벽3시께 급습, 마침 집에서 식사준비중인 포웰을 체포했다.

FBI는 범인으로부터 인질금 1만달러 대부분도 회수했다.

피살자의 남편 안경식씨는 「지난 10일아침 아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나간 후 납치됐다」고 밝혔다.

안여인의 장례식은 14일 하오2시 제이스장의소에서 조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여인은 전주태생으로 경기여중고를 졸업, 69년에 서울약대를 졸업하고, 그해 6월 안경식씨(65년 서울의대졸업)와 결혼해 12월에 남편과 함께 디트로이트로 이민왔다.

그녀는 남편이 의과수련을 받는 동안 X-Ray 기술요원훈련을 받고 근무해가계를 이끌어 왔으며, 중부한인미시건교회 주일학교 봉사, 학교자모회 관계에도 남다른 성의로 봉사해 왔다고 한다.

한편 안씨의 장례식을전후해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죽이겠다」고 협박전화가 잇달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이춘재기자〉

◇안여인의 시체가 발견된 듀플렉스하우스 차고. 범인이 언제 안여인을 살해했는지는 묵비권을 행사 밝히지 않고 있다. 괄호안은 숨진 안시진 여인.
〈디트로이트 이춘재통신원찍음—UPI전송〉

범인 체포 백인전과자

돈받은후 前妻딸집에갔다 쇼핑까지
생명은 안전하다 "돈놓을장소 통보
달려가보니 萬弗 준비하라" 쪽지만
부인車소재 알리는 電話메시지 남기고

안씨의 부인은 10일 외출했었다. 안씨는 병원 근무에서 돌아온 후 전화메시지에 담겨진 범인의 협박으로 납치사실을 알았으며, 친구를 통해 FBI에즉각 신고했다.

범인은 전화 메시지에서 안씨부인 자동차가 「프랭크너서리」에 있다고 밝혀 안씨가 현장에 가보니 부인은 없었으며, 대신「 현금 1만달러 준비하라」는 쪽지를 남겨 놓았다.

범인은 다시 10일밤 7시 전화를 해 안씨에게「부인의 생명은 안전하다. 내일 하오 1시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어 11일 하오1시 범인은 전화를 걸어 「돈이준비됐는가? 오늘저녁 6시에 전화로 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하오 6시에 다시 범인은 전화로 「밤10시까지 교외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 파킹장에 와서 차에다 돈을 두고30분간 다른데가 있으라」고 안씨에게 통보했다.

안씨가 범인의 요구대로 집에서 12마일지점의 베스트·웨스턴호텔에 도착한것이 밤 10시15분께 였으며, 돈을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범인은 안씨자동차에서 현찰 1만달러를 회수한 후 별거중인 전처딸네 집에가서 6백달러를 주고, 마켓에도 들려 장을 본 후 새벽 2시께 집으로 돌아왔다.

FBI는 사건신고 접수후 용의자를 물색하여 오던중 안씨소유 듀플렉스 하우스에 세를 들고 있는 포웰이 전과자임을 발견하고 혐의를 두고 수사해 오던중 포웰이 안씨자동차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잠복중에 발견, 범인임을 발견했던 것.

현재 새기노경찰서에 구류중인 범인은 일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주중에 예심이 열릴 예정이다.

교포피살잇달아

시카고 차동근씨 둔기와 총에 맞고
맨하탄 주현자여인 칼찔린 시체로

연휴인 지난 주말 시카고와 뉴욕에서 교포2명이 괴한에게 각각 피살되었다.

시카고에서 「문랜드」가발상을 경영하고 있는 차동근씨는 (34)지난 13일온몸에 둔기로 난타당한 후 후두부에 총을 맞았으며,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주현자 여인(26)은 칼에찔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차씨는 가게뒷쪽 화장실에서 상의가 벗겨진채 온몸에 각목으로 추정되는둔기로 난타당했으며, 뒷통수에 1발의 총격까지 당한채 쓰러져 있었다.

숨진 차씨는 지난 8일, LA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및 4세난 아들을 만나기위해 LA에 갔다가 11일 시카고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발견 하루전인 12일 하오부터 이 가게는 문이 열린채 주인 차씨는 보이지 않았으며, 인근 불량배들이 마구 드나들며 가발등의 물건들을 집어가 이를 이상히 여긴 이웃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한다.

경찰당국은 16일「 차씨의 살해사건은 현재 까지 수사상의 아무런 진전이없다. 그러나 둔기사용에 총격까지 가한 것으로 보아 인근 변식범의 범행으로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밝혔다.

한편 뉴욕의 주현자여인은 15일밤 맨하탄에 있는「웹코트호텔」311호실에서 칼에 찔려 숨진채 옆방 투숙객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동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 매니저에 의하면 숨진 주여인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월 280달러를 내고 이 호텔에 장기투숙해 왔다.

(뉴욕, 시카고지사)

한일 외무장관회담 3월, $60억차관문제

(서울18일＝연합)18일정통한 외교통신에 의하면일본의 요시오·사꾸라치 외무장관이 3월경 노신영 외무장관과 회담을위해 방한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서울측이 일본에 요청한 60억달러차관협상이 긍정적인 반향으로나가고 있으며 내달에 있을양국관계 장관들의 회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금리 인상불구 캐나다금리 안정
달러가치는 하락 1달러당 82.33센트

일부은행가들은 금년들어 연방정부 금융정책이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한다.

계속적인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 18일 발표된 캐나다중앙은행금리는 14.87%에서 14.74%로 약간 떨어졌다.

토론토 도미니언(T·D)은행의 더글라스·피터씨는 "이미 주정부로부터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돼도 좋으니 금리를 계속 낮추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캐나다의 금융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19일 캐나다 외환은행의 이수신 전무는"설명하기힘든 상황이다. 캐나다가 미국을 무시한 독자적 금융정책을 쓴다는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멀지않아 캐나다금리가 미국금리를 쫓아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타와의 금융전문가들은 캐나다제 금리가(Made in Canada)가 미국금리보다 낮을수는 있으나 결국은 달러가치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난2주간 계속올랐던미국주요은행의 최고로 신용도가높은 고객에게주는 우대금리(Prime Rate)는 19일 현재 17%선까지 올랐으나 캐나다은행들은 아직도 16.5%선을 유지 캐나다달러에 심한압력을 주어왔다.

18일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캐나다 1달러는 미국돈 82.33센트를 유지, 지난1월5일의 84.39센트에서 2 센트 이상이 떨어졌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최근까지 미국금리보다 캐나다금리 수준을 약간 높게 책정, 외국자본가들에게 매력을 주고 캐나다 달러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을 써왔다.

금융시장전문가들은 이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 낮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달러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있다고 말했다.

뱅크 오브 커머스의 벤·체스트린씨도"캐나다 금리는 지금-미국쪽 눈치를 보고있다. 현재는 미국을 바로쫓아 움직이는 것보다관망하는것이 나을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봉사자 훈련
사회사업기관 위해

메트로토론토무료봉사자센터(the Volunteer Centre of Metro Toronto) 에서는 욕지구(Borough of York) 사회사업기관을 돕기위한 이민가정 출신의 무료봉사자를 훈련시키고 있다.

$23,000 연방정부 보조로 둥센터는 비.디.훗. 쥬니어·퍼블릭스쿨(B. D. Hood Junior Public School) 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무료봉사자들을 훈련시킨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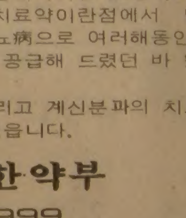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한국일보

533－2361～4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8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양약과 식이요법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당뇨병의 희소식!!
당뇨病으로 고생하시는 교민들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금번 폐점에서는 한방의 비약인 漢糖秘方을 수년간 탐문끝에 최초로 독점 입수하는데 성공했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의학에서는 당뇨病이 불치병으로서 치료약은 없고 병세가 극심하지만 않도록 음식을 가려가며 조절하기위한 약을 매일같이 평생동안을 고생스럽게 투약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폐점에서 입수한 漢糖秘方은 끝도없이 복용해야하는 조절약이 아니라 2個月간 복용으로 시원하게 완치되는 치료약이란점에서 남모르는 노력을 수년간 기우린 결과 얼마전 당뇨病으로 여러해동안 고통스러워하시는 교민 한분에게 소량을 우선 공급해 드렸던 바 完治되는 효과를 보았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과 완치기쁨을 누리고 계신분과의 치료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도록 해드릴수도 있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한약부
☎ : 536－1692, 1999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536-1692 R.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꽃파는 여인에 추방령

범죄없고, 자립했으나 불법체류자

지셀라·진피노래비 여인은 매일같이 꽃가게와 스파다이너의 아파트를 왕복하는 것이 지난 6년간의 일과였다.

한 나라에 불법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그녀의 두려움이었으나 이제 꿈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금년 57세인 레비 여인은 19일 다시 이민국에 출두해야 했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민관 질문에 응할 것이나 "캐나다를 언제 어떻게 떠날 것이냐"고 물으면 할말이 없단다.

레비 여인은 48년 유고가 공산화된 후 탈출, 이스라엘과 우르과이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 두나라의 시민은 될 수 없었다.

"캐나다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무엇을 해요? 범죄의 기록도 없어요. 캐나다정부의 혜택은 1¢도 안받았어요. 다만 열심히 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캐나다가 이민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네요"하고 이 여인은 반문했다.

토론토이민국은 바로 그 점이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이 여인의 경우는 안된다. 피난민 케이스를 적용할 수 없다. 모든 그녀의 기록을 살폈으나 어쩔 수 없다. 그녀는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고 로저·화이트 이민관은 말했다.

그녀가 마지막 거주지 우르과이를 떠난 것은 75년이었다. 남편은 반체제인사로 우르과이정부에 체포됐다.

방문비자를 갖고 아들 다니엘과 75년에 토론토에 도착한 레비 여인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민법에 의해 국내에서는 신청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냥 남기로 결정했다. "갈 곳이 없어요. 이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자유가 없는 다른 나라에 가기보다는 평생토록 꽃이나 팔며 이나라에 살고 싶어요"라고 레비 여인은 말했다.

토론토에 정착키로 한 레비 여인은 이민국의 눈을 피해 지하로 숨었다. 그녀는 다만 경제적 자립만 원했다.

지하철역 근방에서 꽃을 팔면서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불법체류자인 이여인에게서 꽃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년전 조·쿠락정부는 범죄기록이 없고 자립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에게는 관용을 베푸겠다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레비 여인은 곧 이민국에 신고, 조사가 계속됐다. 지금까지의 이민국 조사는 그녀에게 불리하기만 했다

◇꼭 떠나야 하나? 토론토 웰스리 지하철역에서 강아지 루루를 데리고 6년간 꽃을 팔던 레비여인은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있다. 그러나 아무데고 갈 곳 없는 이 여인은 캐나다 영주의 꿈이 영영 사라질 위기에 직면, 다시 이민국에 출두했다.

대학지원 양상변화

실업률 급증에 자극받아

취업과 관계짙은 과를 지망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에 자극을 받은 온타리오 고교생들이 올해 부쩍 대학지원율이 늘어 최고 대학지원 기록갱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은 특별히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에 몰리고 있다고 대학당국자들은 말한다.

16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월15일까지 지원자들의 85%가 현 고교 13학년생이며, 작년보다 5.7% 많은 고교생이 지원했다.

작년에 비해 지원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학과이다. 작년 수학과 지망생은 1,540명이었으나 올해는 1,840명으로 급증했다. 수학과가 인기있는 이유는 수학과안에 요즘 한창 수요가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 지망생도 작년의 919명에서 1,048명으로 늘어 간호원 수요부족에 명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학부 지망도 늘어 작년의 4,733명에서 4,968명으로 되었으나 경영학부지망생수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5,777명이었다.

지원자의 절반이상은 계속 문리학부(Arts and Science)를 지망, 오래전부터 온타리오 대학제도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학(Science)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작년의 6,400명에서 올해 6,800명으로 뛰었다.

대학당국은 금년도 13학년 졸업생수가 급격히 감소, 대학지원율이 가장 낮은 해중의 하나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degree)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가을 온타리오대학의 풀타임 신입생수는 사상최고의 146,228명을 기록, 그 전해보다 5% 나 늘었다.

이같은 대학지원자의 증가현상은 1976~77 년도의 예상치 않은 5%감소에 이어 4년째 계속되는 것이다.

대학당국자들은 지원율의 대표적 증가원인으로증가하는 젊은층 실업률과취업시장에서 수요가 많은취업부문에 대한 선전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수상〉

눈오는 날에 한국인을 생각한다 ①

김 삼 우(선련사 주지)

◇김삼우 씨

한국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그것은 슬프거나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다. 그리고 흥분이나 감격해서 나오는 눈물도 아니다. 우리는 때로 속이 상하거나 애가 타서, 아니면 즐거움에 넘쳐 와칵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눈물도 아니다. 이런 감정적인 기복이나 파동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뜻밖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내가 경험한 일 가운데 거지들이 있다. 사실 나 자신도 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처님 경전에 위로 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의 은혜를 입고 있는 구도승을 걸사(乞士), 곧 "거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무엇인지 빌(갈망) 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구하고 바라면서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를 잊어버린 아름다운 원망(願望)일 수도 있고, 그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욕심과 번뇌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보통거지, 말하자면 빌어먹고 사는 비렁뱅이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중에서 가장 멸시 받고, 천대 받는 측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경멸해서 욕할 때도"거지"라고 부른다.

나는 이 거지들을 유심히 보아왔다. 이들과 얘기도 해보고, 이들이 먹는것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이들과 놀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한결 같이 공통된 것은 꾸미지 않고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리고 욕심이 없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들과 허심탄회하게 빈 마음으로 곧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속세의 가장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속세를 멀리 떠나버린 이들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만난 모든 거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보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좀스런 거지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좀스런 거지들 가운데서도 어린애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천진난만함과 [자기]를 잊어버린 훌륭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적어 자기일만을 생각하는 번뇌가 없다. 하루 두 세끼의 밥, 한 자락의 햇빛, 춥지 않은 곳에 누우면 잠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 위에 한 개비의 담배나 술 한잔을 얻어 마실 수 있다면 천하를 얻은 것같은 즐거움이 솟아나온다. 하지만 나는 꼭 세번 나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한 거지를 만난 적이 있다.

벌써 20년전의 일이다. 내가 잠시 경남 고성 옥천사에 몸을 담고 있을 때였다. 산사의 겨울도 깊어 수각에 얼음이 얼고, 풍경소리가 적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정오가 조금 못되어 사시마지를 올리고 나오니 절 안마당에 거지가 한 사람 서있었다. 나이가 한 50은 되어 보이는데 겨울처럼표정이 별로 없다. 후원 객실로 인도하여 점심을 대접하니 어려워하면서 잘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볼일 다본 사람처럼 공손히 인사를 하고선 그냥 나간다. 말이 적고 태도가 의젓해서 옹졸하거나 비굴한데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그래도 인심을 써서 내가 입던 옷가지나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분의 초연한 태도에 눌려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말았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에 봄이 찾아왔다. 2월하순옥천사 산문옆 외로운 매화나무 가지끝에 매화꽃이 피우렵이었다. 낮은 따스하고 아침저녁으론 아직도 쌀쌀한 환절기였다. 나는 진주에 갔다. 개천면에서 버스를 내려 인적이 없는 외로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문득 눈을 들어 양지바른 쪽을 바라보는데 아 거기 지난겨울 만난 50대의 중년거지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고리를 벗어 여윈가슴을 드러내고 이를 잡고 있는데 얼굴이 온통 웃음이다. 재미가 대단한 모양이다. 따뜻한 햇살과 봄빛, 그리고 웃음이 한데 어울려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천하의 봄을 안고 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도인이나 달사같이 보였다. 나는 이때 도인이 미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절집어른들의 말씀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은 온 세상과 함께하여 조금도 걸림이 없다. 나는 이 50대의 중년거지에게서 궁핍한 곳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아무런 꾸밈 없고 구속 없는 무심의 세계에 안주하고 있었다. 나는 반갑고 행복한 생각에 젖어 봄이 오는 산길을 그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진주 시내를 거닐고 있었다. 길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이북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리를 째고 있었다.

『이 간나 거래이 아바이 보래. 대낮에 무스거 동냥질. 사람이나 없으면 도적질이나 하러 다니재!』

하며 연방 총알처럼 쏟아내는걸보면, 어떤 거지가 대낮에 구걸 다니다가 도둑놈으로 몰린 모양이고. 그 이유가 첫째. 대낮에 동냥 다니는 것이 수상하고, 둘째, 보기에 성한 사람이 거지노릇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구경난 곳에 몰린 어린애들과 어른들 틈으로 잠깐 들여다 보니, 아니 2년전에 본 그50대의 중년거지가 아닌가. 물바가지를 얻어 맞았는지 얼굴과 가슴에 물이 흐르고, 살이 찐 중년부인의부지깽이 끝에 옆구리를 찔리면서 봉변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이나 변명이 없다. 잠깐스쳐가는 어색한 표정외에얼굴에 달리 표정도 없었다. 나를 보더니 약간 놀란 듯 머리를 조금 숙여 인사를 한다. 그러나 그것 뿐이었다. 그리고 욕설과 구경꾼을 뒤에 두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 담담한 태도와 무심한 거동이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을 자아내고 말았다.

그는 아마 끼니를 몇끼 걸렀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도 그는 성한 사람같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밖으로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이분을 세번 보았으나 두번은말없이 보았을 뿐이다. 내가 본 바로는 그는 그냥 거지였다. 그러나 거지가 가장 거지다울때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나는 이때 알았다. 거지가 가장 거지다울때 그는 그자신을 초월해 버린다. 진흙 속에피면서 더러움을 타지않는연꽃처럼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을 멀리 떠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가장 자기다울 때 번뇌가 끊어지고 진실만이 드러나 세상과 하나가 되어 바람처럼 구름처럼 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거지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거지가 아니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린다. 그리하여 우리는 도(道), 곧 하나의 커다란진리를 이룬다. 백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떤가, 진리는 애초부터 다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계 속)

개조된 원건물로 복귀

토론토한인YMCA, 5돌행사도…

토론토한인YMCA(총무 김창열)는 약 1년간의 이전생활을 끝내고 18일 개축한 원건물 웨스트엔드 Y회관(931 칼레지 스트릿)으로 복귀했다.

우선 이날 사무실만 이사하고, 4월3일 완전이사할 때까지 각종 프로그램은 종전대로 세인·클레아 회관(15 로비나 애비뉴)에서 계속 실시한다.

한편 한인 YMCA창립 5주년 축하겸 신관복귀 기념행사는 3월27일 웨스트엔드 새회관에서 다채로운 스케줄로 실시, Y 합창단(지휘 안병원)소음악회, 소속 2개한글학교(토론토한글학교·웨스톤어린이학교)발표회, 영어교실, 토요학교(미술반, 태권도반, 무용반, 기타반, 피아노반, 바이얼린반)등의 발표등이 있다.

한인 YMCA의 2대 협조단체인 알파·베타클럽 후원으로 치러지는 이날 기념행사에는 헨리·라뱃(Henry Labtte) 메트로YMCA 회장이 주빈으로 초청된다

한인Y는 토요학교 음악교실을 증설, 4월부터는아코디온반과 전자올갠 반을 시작키로 계획중이다.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교민들과 자녀들의 체위향상, 문화계발등에 이바지가 큰 한인YMCA는 시설이 다양한 새건물로 들어가 더 한층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시설개조, 확장등 면모를 새롭게 한 웨스트·엔드 Y회관은 1층에 수영장, 사우나, 샤워실, 증기탕, 송구코트등이 있고, 2층에는 체육관(배구·농구코트겸용)·간이식당등. 3층은 강당, 재깅용 실내트랙·소수영장, 옥상은 어린이놀이터, 라켓볼·핸드볼 경기장등이 있는 다목적 센터이다.

◇한인YMCA가 깃든 웨스트엔드 Y회관 새모습.

미혼모 연령낮아져

조기 성교육 시급

(서울18일=연합)미혼모의 평균연령이 계속 내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여성단체가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한 미혼모실태조사에 따르면 419명의 조사응답자중 28%가 19세이전, 59%는 20~24세등 25세전 출산이 87%로 밝혀져 조기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다.

지역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48%는 농촌지역, 34%는 중소도시 출신이었으며 대도시출신의 미혼모는 18%에 불과했다.

학력별분포를보면 총응답자의 36%가 중졸, 32%는 고졸, 26%는 국졸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자는 오직 3%에 불과, 높은교육을 받을수록 미혼모가 적음을 암시했다.

미혼모가된 이유로 31%가 남성 파트너로부터 사기를당한 경우이며, 22%는 여러가지 문제로 결혼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중 68%는 종교를갖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녀에대한 계획으로 38%는 그들의 자녀가 입양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24%는 국가에서 제공하는적당한 시설에 위탁, 14%는 그들이 직접 양육, 나머지 14%는 자녀를 아버지에게 보내기를 희망하고있다.

금연열차 "새마을호"

(서울18일=연합)한국철도청은 내달부터 호화특급열차"새마을호"에 금연객차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 에서는 금연객차제도가 일반적 양상이나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일반객차좌석의 30%는 금연구역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名優와 王妃가된 「왕년의스타」 美國의 명배우 엘리자베드·테일러ⓧ와 왕년의 스타였던 그레이스·켈리 모나코왕비가 14일 뉴욕의 라디오시티뮤직홀 무대에서 거행된 美영화배우기금창설 1백주년기념 「1백스타의밤」 리허설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있다. 【뉴욕15日】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특별출연

기 간: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1618

<몬트리얼 통신>

— 정관성 지국장 —

한인회장에 정희수 박사

◇정희수 박사

몬트리얼 한인회장에 정희수씨가 선출됐다.

지난31일 시내 마리아나 강당에서 열린 82년도 한인회 총회 는 200여 교민으로 성황을 이룬가운데신임회장선출, 82년도 예산안 통과등을 처리했다.

박종구 전회장의 진행으로 81년도 결산보고등을마치고 들어간 회장선거에 백건수씨와 정희수씨가 출마, 정씨가 187표중 128 표를얻어 제13대 한인회장에 당선됐다.

회장선거에 이어 10명의 이사와 감사2명이 선출됐다.

<정희수 박사 약력>

● 1954년 서울물리대 3년중퇴, 캐나다이민. Laval대학에서 석사, 토론토대학에서 박사(1966)
● 온타리오주정부 경제개발부 근무
● 서드베리 로렌손 대학, 셀부룩대학, 몬트리얼대학비숍대학 교수역임
● 퀘벡 자유당 주택담당 경제고문
● 현 퀘벡대학 경제학과 교수, 캐나다 한인학회 회장
● 82년1월 몬트리얼 한인회장

올림픽조사단 몬트리얼에

11일 전상진 본부대사(전 말레지아, 페루 대사,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를 단장으로 7명으로구성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사단이 몬트리얼에도착, 19, 20일 양일에 걸쳐몬트리얼올림픽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올림픽경기장 시설등을 두루살폈다.

특히 조정경기장에 중점을 둔 이 조사단은 짧은기간이지만 잘 짜여진 예정으로 충분한 목적을 거두었다.

12일 저녁에는 이곳 올림픽당시 책임을 맡았던사람들과함께 저녁을 했는데 같이 참석한 김창훈 몬트리얼 총영사는 조사단원들에게 각분야의 사람들에게 준비해온 질문의 답을얻어 가는데 노력하라고 귀띔했다.

몬트리얼 올림픽의 제일선에서 드라포 시장의 오른손 노릇을했던 스나이더씨는 여지껏 많은 조사단이 왔었지만 이같이 백여가지의 질문서를 만들어 세세히 물어오는 조사단은없었다면서"우리도 미처 생각못하던 사항이 많아 다시 우리가 올림픽을 연다면 참고될 것이 많다"고 이 조사단을 극구칭찬했다.

한편 전 단장은 떠나기에앞서"우리 올림픽은 벌써 오래전부터 착실히 준비한 관계로 별로 어려움이 없이 치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벌써 2만명을 수용할수있는 실내체육관이 완성됐고, 지하철도이미 개통되었으며, 10만명수용능력을가진 종합체육관도 곧 착공, 86년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모든준비는 끝나게 됐다고 말했다.

30만 관광객 예상 '88서울올림픽

(서울18일=연합)서울올림픽 구성위원회 김용식회장은 18일 88년서울올림픽에 140 개국에서 11,000여명의 선수들이 모여 승부를 겨룰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올림픽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김회장은 서울올림픽은 23개 종목에걸쳐 88년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16일간 서울과 몇몇 지방도시에서거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선수 외에도 3,000명의 스포츠 관계임원, 11,000명의 국제스포츠회 의 대표, 심판원 7,000명은물론 25~30만명의 관광객들이 스포츠 축제동안 한국을 방문할것이 예상된다고 김회장은 덧붙였다.

◇출마선언-1960년대 유명한 반전기수던 톰·헤이든이 10일밤 캘리포녀주하원 민주당 지명전 출마를 정식선언한후 아내 제인·폰다와 카메라앞에서 활짝 웃음을 보내고 있다. 1인당 2백달러짜리 이날의 모금파티엔 여배우인 폰다의 연예계 동료들이 대거참석, 화려한 출발을 장식했다.

몬트리얼 노인회 회장 방용성씨

몬트리얼노인회(회장 정세봉)는 지난6일 회원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회장에 방용성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동열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총회는 정세봉회장의 임기동안 타계한 두 회원의 명복을 비는묵념에 이어 박동열 간사의 회계보고와 김영문씨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또한이날 부회장에는 박동열씨와 임정현 여사가선임됐다.

이어 노인회가 준비한간단한 음식과 음료수를 나누며 극영화"종군수첩" 을 감상했다.

노인대보름잔치 몬트리얼 연합교회

몬트리얼한인연합교회(목사 배한국)는 지난13일 한인연합교회 지하실 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남신우회 주최로 노인들을위한 대보름 잔치를 가졌다.

배한국 목사의 기도로시작된 이날잔치에서는 60세이상의 노년부와 60세이하의 장년부로 나누어 윷놀이가 벌어졌다.

이어 주일학교 학생들의 아리랑 합창과 이대국악과를 졸업한 최금오씨의 가야금독주등 여흥순서가 있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⑪

고마태오(중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쌍 루이 드 프랑스 성당은 모레알시의 중심지에위치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30년도만 하더라도 모레알대교구에서 교우숫자로 보나 재정면에서나 5대본당의 하나로 손꼽혔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반대로 5대가난한 본당으로 전락되었단다. 그 이유는 1930년도 세계경제 공항기를 거쳐급속히 발달된 농촌의 기계화와 도시의 공업화가 불어 일으킨 경제의 호전으로 농촌과 도시의 인구이동이 불기피했었기 때문이라 했다. 기계화에 밀려난 농촌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 들었고, 도시 중심지에 살고있던 부르죠와 계층의 시민들은 보다 조용한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새로 개척되기 시작한 교외, 주택지대로 이주했던 것이다.

그러자 도시중심의 화려했던 주택가에서는 농촌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동자들과, 때마침 세계 제2차 대전후 일자리를 찾아 맨주먹으로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의 이민자들이 싼 셋방을 찾아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 가난한 노동자와이민자들은 한 10년간 부지런히 일해 돈을 모으면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해 이주해 떠나곤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세들어 오곤 했다. 그래서 번화했던 도시중심의 주택가는 영원한 빈민촌으로 남아있을수밖에 없었다.

당시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 신자수는 6,000여 명을 헤아리고 있었으나 그중 1,500명 정도는 일생에 세번 성당에 나온다는 소위 말하는 냉담자들이었다.

즉 그들은 영세성사 때와 혼배성사 때와 장례식때성당을 거쳐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1,500명은 "빠스카당"이라고 말하는 신자들인데, 1년에두번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성당에 나왔다. 나머지 3,000명 정도는 1년에 적어도 20번정도 주일미사에 참례하며 판공성사를 지키는 신자들이었다. 주일미사 평균 참례자수는 2,000여명을 헤아렸다.

당시는 아직도 세계제2차대전이후 유럽을 휩쓴무신론적 실존주의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였으며, 특히 물질문명에 싫증을느낀 젊은 세대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생활관아래 "히피족"이 되어 종교에무관심할 때였다. 그런가 하면 기성세대는 물질문명이 주는 편의와 안락 속에 신앙생활같은 것은 외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쌍 루이 드 프랑스 본당의 신앙 실천비율은 그래도 좋은 편이라 했다.

재정면에서는 겨우 성당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다. 사제관 경비(신부들의 식비)는 기이에 본당신부가 자기 개인재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분은 백만장자의 맏아들로 자기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았다고 했다. 그분은 자기돈으로 본당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별장을지어줬으며, 그외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은 쌍 루이 드 프랑스 성당의 본당신부를 자원해 왔다고 했다.

다행히 성당 동쪽편에 "파악 드 휜텐"이라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그 지역에 부자교우들이 상당히 살고 있었다. 그들이 본당 재정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었다. 주일미사 참례자의 70%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러한 실정때문에 성당 서쪽편에 살고 있는 가난한 신자들은 공연히 "부자들만 상대하는 성당"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성당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샥그 기이에 본당신부외에 2명의 보좌신부가 있었다. 제1보좌선부의 이름은 삐에르·마르티노 였고, 제2보좌신부는 제랄도·빈리에르였다. 나는 제3 보좌신부가 되었다. 제1보좌 마르티노 신부는 착한심품의사람이었으나 성당일에는너무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야간대학에 나가 수학석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본당신자들은 마르티노 신부가 곧 사제직을 떠날 것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무렵 신부가 철학이나신학이나 또는 사회학이아닌 다른 일반과목의 공부를하면 환속준비를 하는것으로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다. 과연 그는 수학석사학위를 획득하자 사제직을 떠나어느 고등학교 수학선생으로 취직되어 나갔다.

(계속)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a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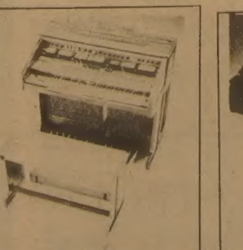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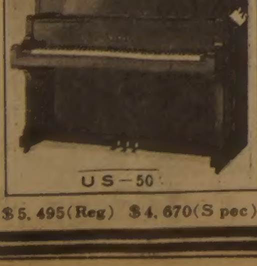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K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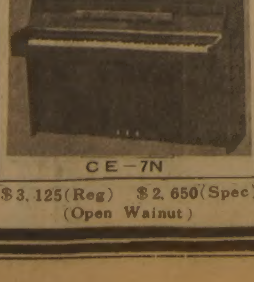
전자올갠


E-620

E-360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inut)

GS-30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市道에 綜合文藝會館 건립

文公部 업무보고 藝能 특기자에 兵役 면제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상오 청와대에서 李光杓 문공부장관과 金洙得 해외공보관장, 趙成天 弘報조정실장, 관계국장으로 부터 약 2시간동안 올해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國立國樂堂, 晋州·淸州·濟州박물관, 大都市 大型서점 추진

문공부는 이날 보고를통해 文化의혜택을 고루 나누기위해 文化의중앙집중현상을 지양,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민족치욕의 현장과 중요敗戰의 현장등 受難의현장을 국민교육도장으로 조성키로했다고 밝혔다.

문공부는 또 방송의公共性을 높이기위해 사회교육기능을 확충하고 방송제작요원의 자질향상에 힘쓰는한편 방송장비의 국산화개발을 촉진키위해 방송기술개발연구소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문공부는 특히 韓美우호의해를맞아 傳承工藝및 陶藝展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문화원에서 각각 열고 녹스빌에너지박람회에서 국악을 공연하며 유럽에대한 문화홍보의 강화를위해 그지역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선진국과같은 문화홍보체제로 전환키로했다고 밝혔다.

문공부는 지금까지 극장관람료에 덧붙여 募金해오던 문예진흥기금을 앞으로는 大企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문화예술인의 모금행사를 통해 확충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예술創作활동의 지원을 위해 藝能특기자에게 병역을 면제하고 인간문화재를 보호하기위해 현재의 月11만원씩 지급하고있는 생계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며 國公立병원의 무료의료혜택을 주기로했다고 보고했다.

문공부는 또 3大否定的心理의 추방과 主人의식의 함양, 올림픽에 대비한 문화국민으로서의 자질확립등 국민의식개혁을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제홍보에 힘을기울여 인플레심리추방에 노력키로 하는한편 우리의 民主통일방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 北韓의 「聯邦制」를 우리의 통일방안과비교, 그虛僞性을 밝혀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中·長期홍보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文化·藝術부문에 관한 문공부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受難현장의 국민교육 도장조성=우리 민족사에서 외침에의한 굴욕을 겪은곳, 민족문화가 초토화된곳, 역사적 패전장, 민중이 고난을 당한곳등에 4년계획으로 전시관과 기록화, 부조등을 세워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교육도장으로 삼을 방침이다.

◆전통생활문화의 개발=예절에 관한 고전 「三綱行實圖」를 번역출판하며 민족고유의 「酒」와 「茶」를 개발한다.

◆世宗위업선양=제1회世宗大王賞을 문화·예술·학술·과학기술·교육·국방등 6개부문에 걸쳐 한글날기념식 석상에서 시상한다. 世宗大王숭모제전을 탄신일인 5월15일을 기해 거행하며 英陵종합정화사업을 금년에착수, 84년에 완공한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淸州·全州·光州에 이미 건립한 종합문예회관을 전국시·도단위 1개소목표로 늘려 건립하고 晋州(79~83) 淸州(82~84) 濟州(78~83) 安東(81~85)등지에 박물관을 세운다. 지방대도시에 출판금고 지원으로 대형서점을 개설한다.

◆고도문화권 개발과 문화재보수=충서부古都(百濟)·慶州·濟州·伽倻·中原등 문화권개발에있어서 유적의 원형보존을 창연한 고색을 유지할수 있게 개발하고 보수한다.

受難史蹟, 敎育場으로

全대통령指示 전국민 經濟人化 弘報를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지방문화시설에있어서는 우리의 傳統美를 살리도록 하고 문화시설을 위한 건축등은 數위주보다 質에 중점을 두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수 있도록 튼튼히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문공부의 올해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강조하고 『지역간 문화격차해소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또 『문화遺蹟보존에 있어서는 原形을 유지할수있도록 노력하는한편 옛文化圈을 재현할때는 관광과 연결지을수 있도록하고 受難의 유적지는 역사교육의 場으로 조성토록하라』고 당부하고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 출판업의 근대화를 위한 지원및 출판물의 유통구조근대화에 주력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문공부는 국민和合 촉진의 중심기구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국민의식개혁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3大否定的 심리추방과 경제도약을위한 전국민의 經濟人化를 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공부 보고자리에는 劉彰順 국무총리 孫守益총리行調실장이 배석했다.

國威떨친 選手39명 靑瓦臺조치… 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최근 국내외경기에서 國威를떨친 운동선수·임원등 39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고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이자리에는 제2회 국제친선 핸드볼대회 참가선수단의 成永俊선수등 16명, 제5회 인도네시아 대통령배쟁탈 권투대회 참가선수단의 許永模선수등 4명, 제30회 西獨오픈 탁구선수권대회 참가선수단의 安海淑선수등 17명, 金喆鎬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등이 참석했으며 曺相鎬 대한체육회장, 金宗河 대한핸드볼협회장 崔元碩 대한탁구협회장 梁正圭 대한권투위원회회장등이 배석했다.

스틸웰副次官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16일하오 靑瓦臺에서 리처드·스틸웰 美국방성 정책담당 副次官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周永福 국방장관, 위컴韓美연합사령관, 클리블랜드 駐韓美대사 대리가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헨리크·블롬스테트 駐韓핀란드대사 (일본常駐)의 예방을 받았다. 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 시간에 블롬스테트 대사부인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赤十字會費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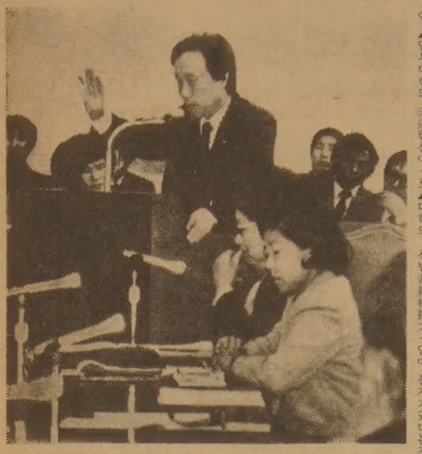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 16일하오 청와대에서 金溶植 대한赤十字社총재에게 적십자회비로 金一封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千命基보사부장관이 배석했다.

大入面接 點數化고려

李文敎, 文公委 답변 일부前期大 後期로

"先시험 後지원 폐단많다 合格線 비공개 是正해야" 질문



◇16일하오 국회文公委에서 李奎浩문교장관이 大學入試 제도의 문젯점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신랄한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국회는 16일하오 文公委를 열고 李奎浩文敎장관으로부터 「현행대학入試제도및 82년도 大學入試의 중간평가」를 보고받은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회의에서 李義永 林在正 康源栄(이상民韓) 朴源卓 南載熙 具龍鉉 李潤子(이상民正) 姜栱裿의원(국민)등은 질의를통해 ▲年例행사처럼일어나는 入試波動의 원인 ▲일부대학의 未達현상이나 合格線推定에대한 誤判현상 ▲內申성적의 不均衡에서 오는 副作用 ▲複數志願制로 인한 눈치작전과 射倖心의조장 ▲急增하는 再修生대책등 현행대학入試제도의 문젯점을 추궁하고 그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각대학의 지원상황과 合格線을 非公開로 하여 混亂을 加重시키고 投機心을 조장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입시제도의 개선책으로 ▲대학의 선발裁量權擴大 ▲入試제도관리를 위한 민간기구의 常設 ▲현행 「先考査 後지원제도」를 「先지원 後고사제」로의 전환 ▲대학지원은 단수, 학과지망은 복수로 전환할것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또初中高교장 任期制의내용과실시시기를언제로 잡고 있느냐고 묻고 私學에대한 감독강화를촉구했다.

李奎浩문교부장관은 답변을통해 『완벽한 高校평준화가 안된상태에서 內申성적반영에 문제가있다는것을 인정하지만 고교평준화가 정착되고 大學入試가 정상화될때까지 당분간 內申성적반영30%를 고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대학입시제도는 현제도의 장점을 살리며 補完하는선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구두시험을 최소한의 點數化하는것을 고려해보겠다』고말했다.

李장관은또일부前期大를後期大로 바꾸는 문제에대해 『전기대입시에서떨어진학생들이 들어갈만한 후기종합대학이 있어야된다고 보기때문에 올해는 어떤방식으로든조정해보겠다』고 말하고 本고사復活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2重고통을 줄필요가 없기때문에 추호도 생각지않고있다』고잘라말했다.

그는 또 『일부대학의 교직원자녀 입학特惠가 있다는것은 알고있으며 내년에는 이러한일이 절대로 일어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학력고사를 인문·자연·실업계로 系列化시킬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대해 『학력고사의系列化는 어려울것이없으며 이문제를 발전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밝히고 『현재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뉘어져있지만 보다 구체화시키는데는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各界人士로 入試改革委 구성"

李장관은또 課外해소문제에 언급, 『이문제는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될수없는것이며 제도적인 定着化를위해 대학진학의폭을 넓히는등 補完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답변했다.

그는『高校內申성적등은 고교교육정상화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바지하고 있으며 敎權伸張에도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하고 『유아교육은 당초의방침대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李장관은 이날회의벽두에 「현행대학入試제도및82년도 대학入試중간평가」보고를통해 현행 대학入試제도는 ▲대다수대학의 전기집중 ▲본고사 폐지에따른 대학재량권제한 ▲內申성적일률반영에대한 대도시학부모의 불만 ▲「先試驗·後志願」에따른 선택의 방황등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말하고 『各界인사로구성된 전문위원회를 文敎部산하에 설치, 오는 5월까지 入試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그러나 현행入試制度는 ▲과외및 입시경쟁과열해소 ▲高校교육정상화 ▲재수생감소 ▲서울·지방대학간 균형발전등의 많은장점이 있다고지적, 『大學敎育개혁사업은 점차 정착화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李장관은 특히 82학년도大學入試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학부모와 수험생이 대학및학과선택에 있어 상당히신중성을 보였고 작년도와같은 주요대학의 대량미달사태가 발생치 않았으며 世稱 일류대학일수록 지원률이 저조한현상을 보이는등 전반적으로 상당한 진전과 제도적 정착성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올림픽등 體系的진흥위해

體育部 내달發足

政務2長官室·文敎部등서 機能흡수

정부는 국민체육의 체계적인 振興과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등 국제경기를 효과적으로 전담지원케하기위해 體育部를 3월중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오는26일 개최되는 제1백10회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무처 李仁遠대변인은 16일 『국민정신의 함양과 체육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구축하고 올림픽등 국제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키위해 체육부를 신설키로했다』고 밝히고 『체육부신설방침은 「開放체제를 통한 先進國化의 목표 달성」이라는 全斗煥대통령의 비전을 반영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체육부는 문교부의 體育國際局의 체육기능과 올림픽지원업무를 맡고있는 政務2장관실및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일부기능과 조직을 흡수케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부의 조직규모에 대해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체육국과 올림픽지원국의 2개局으로 구성될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체육부신설과 관련, 『정부조직을 늘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고 『신설되는 체육부는 지난해10월 단행된 정부기구축소작업에따른 초과인원가운데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에 파견된 50여명의 공무원을 활용하고 소수의外部전문가들을 받아들여 우선 간소한 인원으로 발족케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체육부는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등 국제경기에대비하는 한편 체육을 통한 청소년지도육성에도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佛등10餘國 이미設置…時限附여부檢討

정부의 體育部신설은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서울개최, 84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등 잇달아 펼쳐질 국제경기에 효과적인 對備를 위해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육과학의研究 ▲체육시설의 확충과 국민體力및 레크리에이션향상등을 꾀하기위한 것으로 볼수있다.

體育部신설의 필요성은 문교행정의 업무 폭주로 체육진흥등 체육행정이 미약하다는 반성이 있었던데다 지난해 9월30일 88올림픽 서울개최가 확정된이후 더욱 강조돼왔다.

그러나 그당시의 체육부신설논의는 정부기구축소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여서 뒤로 미뤄졌다가 올해들어 신설논의가 구체화를 보게돼 지난1월중순부터 작업이 착수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체육부의 신설은 작년4월 노동부의 승격과 79년12월의 환경청신설에 이은것으로 체육부가 신설되면 2院15部4處14廳의 현행정부기구는 2院16部4處14廳으로 늘어나게된다.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부나 체육관계정부기구를 둔 나라는 프랑스, 말레이지아, 리비아, 터키, 이라크, 나이지리아등 10여개국에 이르고있다. 이중에는 체육업무와 청소년지도육성업무를 한데 묶고있는 나라도있고 관광업무와 함께 묶고 있는 경우도있다.

체육부가 신설될 경우 政務2장관실의 업무와 人力이 체육부로 흡수되게돼 정무2장관실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육부장관의명칭 폭넓은 改閣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육부의 존속을 時限附로 할것인가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는데 체육진흥과 올림픽 업무의 完遂라는 목표가 달성됐다는 판단이 설때는 폐지여부가 검토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河昌壽기자】

社會漫評

「體育部」 發足

盧외무 스리랑카着 外相회담 經協논의

【콜롬보16日聯合=特】 스리랑카를 공식방문중인 盧信永외무부장관은 16일 샤울·하미드 스리랑카外相과 만나양국 外相회담을 갖고 두나라간의 공동관심사를협의했다.

盧장관은 이어 이날하오 주니어스·자예왈데네 대통령을예방, 국제정세 전반과 양국간의 經協문제를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盧장관은 17일 스리랑카에 진출중인 京南기업의 공사현장을 시찰후 하오 두번째 공식방문국인 印度로 출발할예정이다.

地平線

孫悟空의 西遊記에 人蔘果얘기가 나온다. 인삼냄새만 맡아도 3백60년, 한알을 먹으면 4천7백년이나 長生한다고. 唐나라의 玄宗은 楊貴妃를 끔찍이 사랑했지만 그 스태미너 역시 고려인삼덕이었음을 아는이는 드물다.

▼신비한 영약인 고려인삼을 한국사람들은 자주 달여 먹는 실정이나 우리들보다 그 인삼을 더 알아주는 처지는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인지 모른다. 대만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꼭 사들고가는것이 고려인삼이기도 하지만 經濟大國이라고 자칭하면 한국사람을 멸시하기쉬운 일본사람마저 고려인삼앞에서는 맥을 못춘다. 일본최고재판소에서는 「고려인삼은 예부터 전해온 한약으로서 일본대중에게 약효가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이라」는판결까지 엊그제내렸다. 단순한 건강식품이아닌 의약품 이라고 1, 2심을 거쳐 최고재판소에서 최종판결한것을 보더라도 일본사람들이 고려인삼을 얼마나 동경해왔는가를 알만하다.

▼몇천년전엔은 神農本草經의 人蔘대목을 보면 「氣味甘, 微寒, 無毒,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 開心, 明目, 益智, 久服輕身延年」이라고 인삼이 약가운데 上藥임을 알려주고 있다. 요즘은 일본이나 중국, 소련, 미국 에서도 인삼 대량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 약효에있어 우리나라 인삼을 따라오지는 못한다고 한다. 濟州에 표착한 하멜의 漂流記에도 인삼소개가 잠깐나오나 1711년 프랑스宣敎師가 고려인삼에관해 쓴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서 인삼을 캐기시작했다고 하니 인삼본고장은 뭐니뭐니해도 우리나라인것이다.

▼소련의 인삼연구 권위자 브레크만박사는 인삼이야말로 부작용없는 새로운약 아타푸도겐이라고 극찬한다는 것이다. 毒性이 없는 약이 없다고 한다. 副作用이 없는데 놀랍게도 인삼은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인삼의 약효는 온몸에 미치며 고혈압은 내리게하고 저혈압은 올려주게하니 이 믿기어려운 약효 — 아타푸도겐은 현재로서는 인삼밖에없다는 얘기다.

▼아득한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삼을 칭찬해주니 싫지가않다. 다만 근래 그 경작을 농민들이 꺼려해 대량재배에 애로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 表土層을걷어내면 連作이 가능해졌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있는만큼 질과 양 두가지면에서 인삼왕국의 자리를 지키기위한 개발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 특별염가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 만 구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매 표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공 고
서 인 현, 이 임 선
위 두분을 당조합 적금전담 외무직원으로 임명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982년
한인신용조합장
한 상 훈

NO. 5248

이란、호메이니後繼체제로
「3人執政評議會」구성

몬타자리등 大聖職者로 集團운영
有故時까지 拒否權만

◇敎皇손에 입맞추는 나이지리아大學生 나이지리아의 이바단 대학학생이 15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손에 키스를 하고있다.【이바단15日AP=聯合】

【런던15日UPI=聯合】 이란집권 회교성직자들은 와병중인 것으로 알려진 회교혁명지도자 호메이니옹(82)의 뒤를 이을 3人집정평의회를 구성했다고 런던의 이란망명소식통들이 15일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알리·하메네이 대통령이 14일 성도 쾀에서 회교지도자들과 4시간동안 회담한후 3人평의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테헤란의 호메이니옹가족과 통화한바에 따르면 3인평의회가 호세인·알리·몬타자리, 마라시·나지피및 모하메드·레자·골파가니등 대성직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란회교지도층이 당초 몬타자리로 하여금 단독으로 호메이니의 뒤를 잇게할 계획이었으나 몬타자리의 건강상태를 고려, 이같이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게된 것이라고 전했다.

평의회는 회교헌법에따라 호메이니옹의 유고시까지는 집권하지 않으나 호메이니와 같은 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

이란전문가들은 이른바 호메이니그룹이 3인평의회구성을 통해 아메네이에 비해 보다 온건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회교의회의장 하세미·라프산자니에 도전하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란이 집단지도체제를 택한경우 카리스마적 지도자상의 결여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메네이 대통령은 13일이란당국이 호메이니옹의 퇴진에 대비, 궁극적인 권력승계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는데 앞서 오는3월1일까지의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한 호메이니옹은 현재 심장병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埃、정치범釋放거부
최고裁判所 건의"憲法에위배"이유

【카이로15日AFP=聯合】 이집트정부는 지난9월 고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정부가 검거한 1천5백36명의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이집트최고사법평의회의 결정을 거부했다고 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이집트정부는 최고사법평의회가 정치범의 석방문제를 결정할 헌법상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범석방결정을 거부하는 한편 이 문제를 공소원에 제소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최고사법평의회는 정치범담당검사가 이들에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발표한 며칠후인 지난11일 사다트前대통령에의해 구속됐던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었다.

소식통들은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측은분노를 표하면서 사법부독립을 위해 法務相의 해임을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蘇機 印尼취항禁止
자카르타支店長 간첩혐의追放따라

【자카르타15日로이터=聯合】 인도네시아는 소련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자카르타지점장 알렉산데르·피넨코를 간첩혐의로 추방하고 아에로플로트의 인도네시아운항을 전면 금지했다고 인도네시아보안사령관 수도모제독이 15일 발표했다.

수도모제독은 정부가 지난 6일 체포된이래 단식시위에 들어간 피넨코를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13일 추방했다고말했다.

中共 3大肅清指針시달
鄧小平작성 權力남용·不正부패·人力과잉등

【北京15日UPI=聯合】 중공지도자들은 15일 약3주만에 다시 공석에 모습을 나타내고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北京의 외교관들은 이들 지도층이 시작한 대대적인 전부개편작업으로 수십만명의 관리들의 퇴직 또는 숙청이 연내에 마무리될것이라고 말했다.

중공에서 발행되는 雜誌는 당부주석 鄧小平이 최근 2천만 중공관리들을 개편하는 숙청지침의 일환으로 지방당단위에까지 하부한 공산당의 한 문서를 보도했는데 鄧은 이문서에서 권력남용, 부정부패, 인력과잉이 용납할수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시사했다.

중공당주석 胡耀邦과 수상 趙紫陽은 근3주만에다시 공식활동을 재개, 15일 외국인 방문객들을 접견했으며 부수상 黃華는 미국 언론인 에드거·스노씨의 사망10주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외교관들은 부정부패관리및 反鄧세력에 대한 숙청이 마무리되려면 1년이 걸릴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방관서에대한 숙청작업은 廣東省에이어 四川省으로 확대, 남용된국고금 1백만달러를 회수하고 관련 幹部들에 중벌이내려졌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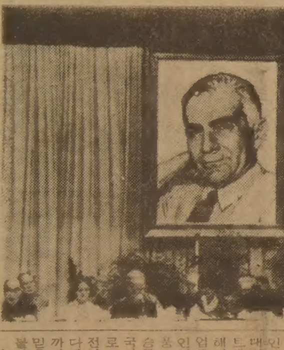
한편 北京방송은 관료숙청운동과 관련 중공군내의 나이 많은 장교 4백93명이 물러나고 젊은장교들로 교체되었다고 보도했다.

鄧小平 남동생 鄧墾
湖北省副省長 임명

【北京15日AFP=聯合】 중앙당부주석鄧小平의동생鄧墾(71)이 湖北省副省長에임명됐다고湖北省방송이 15일 보도했다.

鄧墾은 이전에 湖北省省都인 武漢市黨위원회부서기와 부시장을 역임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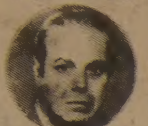
鄧小平에게는 또 여동생이 하나있으며 등슈핑이란 남동생은 문화혁명기간중 홍위병에게 박해를받고 자살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수상 黃華(앞줄왼쪽에서 다섯번째)등 中共국내의 인사들이 15일 北京에서 열린 美언론인 故에드거·스노씨의 10주기추모식에 참석하고있다. 스노기자는 생존시 故毛澤東을 만나는등 中國通이었다.【北京15日AP=聯合】

유엔·뉴욕市 不便한사이

골란 合併관련 이스라엘 逐出결의안 싸고



케아르유엔총장

카치시장

뉴욕에 본부를 두고있는 유엔과 뉴욕市당국은 카치뉴욕시장의 극언으로 비롯된 논쟁때문에 또한번 불편한 관계를 노출하고 있다.

뉴욕시민과 유엔사이는 오랫동안 愛憎관계로 표현되어왔는데 요즘와선 사랑보다 미움쪽이 더심해지고 있는 징후가 짙어지고있는 것이다.

이번 논쟁은 『골란 합병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유엔총회로부터 축출하자』는 한 유엔결의안에 격분한 유대인출신의 카치시장이 「유엔을 『오물 구덩이』라고 몰아붙인데서 비롯됐다.

유엔본부 맞은편에 있는 뉴욕시 소유의 「이사야의 벽」에는 『칼을 두드려 보습을만들고 창을두들겨 낫을 만들라─나라가 나라를 향해 검을 들어서는 안된다』라는 성경구절이 새겨져있는데 카치시장은 10일 거기에다 「비겁」「위선」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첨부해야 한다며 유엔을 혹평했다.

카치시장은 이사야벽의 문귀는 더이상 유엔에 적합치 않으므로 「오물구덩이」와 「위선」에 어울리는 몇마디를 첨가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라고말하고 유엔이 계속 뉴욕에 머물러 있는다면 뉴욕은 히틀러의 출생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猶太人출신市長"오물구덩이"酷評에
유엔側선"건물移轉고려하겠다"맞서

그러자 이날밤 NBC·TV에 나온 한스·야니츠체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유엔홍보요원은 『카치시장과 뉴욕시민이 유엔본부가 옮겨가기를 원하고있다면 신중히 고려하겠다』『카치시장의 이사야벽 발언은 지나쳤다』는 등의 응수를 함으로써 사태는 악화됐다.

이어 케아르 사무총장이 카치시장에 전화를 걸어예정된 점심약속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와 양측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나타냈는데 야니츠체크의 이런 발언에는 유엔기관과 1만명이상의 직원이 매년뉴욕시재정에 8억달러 이상을 떨어 뜨리고 있음을 뉴욕시민에 상기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음은분명했다.

한편 사태가 커지자 케아르 사무총장의 대변인인 프랑스와·기들라니씨는 기자들에게 야니츠체크의 발언은 단순히 私的인것으로 사무총장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게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는 케아르 총장과 카치시장의 점심은 당분간연기된것 뿐이라고 말했는데 주위에서는 아직 점심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아 불편한 관계는 풀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본부와 뉴욕시간의 냉랭한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유엔본부의 이전문제도 오래전부터 거론된것이지만 서로간의 필요에의해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후 세계평화를 보장한 자신이있다며 유엔을 미국으로 유치하기위한 로비를 벌였다.

이때 많은국가들은 유엔본부는 2차대전의 참화를 더많이 겪은 유럽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유엔본부는 49년10월24일 뉴욕시 맨해턴의 현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만큼 유엔본부의 이전은 결코 미국으로서도 명예스럽지못한 일인 것이다.

또 유엔내에서는 정치적 압력을받고 절도 살인 밀수등 각종범죄가 들끓는 뉴욕에서 평화로운 환경으로 유엔본부를 옮겨야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엄청난 이전비때문에 유엔은 뉴욕에 남을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엔외교관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일부에서는 유엔을 현재 각 전문기구들이 상주하고있는 빈이나 제네바로 옮기는 案도 내놓고 있으나 이 두도시도 이미 수천명의 유엔기구관계자들로 만원인 상태로 유엔본부나 뉴욕주재 산하기관 직원1만명을 수용할수는 없는형편인 것이다. 【뉴욕AP=聯合】

컴퓨터가 結婚주례

美 캘리포니아州 교회牧師 考案

모든 節次 字幕으로…목사는 成婚文서명만
비용5백달러·2분이면 끝나 顧客별로없어

남녀의 짝을 찾아주는 컴퓨터는 이제 결혼주례까지대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美캘리포니아州 서니베일의 유니버설 라이프교회 목사 론·자에니시씨(31)는 지난해 말부터 자기교회에서올리는 결혼식에 컴퓨터를 등장시킨것이다.

자에니시목사는 애플 플러스 컴퓨터로 하여금 주례가 행하는 모든 절차를 집전케 한다음 성혼선언문만은 자신이 서명해서 결혼의 합법성을 성직자로서 인정하는 일만 한다.

식장에 신랑·신부가입장하면 애플 컴퓨터는 몇가지 질문을 한다음 성혼선언을하고 이어 두사람에게 키스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통 2분만에 식을 마친다.

다만 컴퓨터는 말로하는것이 아니고 단말기화면에 자막으로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는 컴퓨터주례의 질문에 키를 눌러 대답해야한다.

컴퓨터목사는 우선 신랑·신부의 이름을 물어본뒤 서약을 받는다.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식의 경우 혼인서약때 신랑과 신부가『서약한다』(I do)고대답하지만 컴퓨터주례질문에는 반드시 『네』(Yes)라는 키를 눌러야한다.

『네』가아닌『아니오』든지『할지도모른다』는등 다른키를 누르면 컴퓨터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같은 질문을한다.

그래도 『네』란 답이 안나오면 『당신들의 결혼은 성립이 안됐읍니다』라는 글씨가 나온다.

또 신랑·신부는 이름을 정확히대야지 긴장해서 잘못대면 결코 성혼선언을 해주지 않는다.

이컴퓨터결혼식은 컴퓨터광인 자에니시목사가 원래 귀머거리를 위해 고안한것이다. 그러나 귀머거리 신랑·신부가 많지않아 일반에게도공개하게되었다고한다.

그런데 이컴퓨터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많지않다. 식이 너무 싱겁게끝나는 반면 기부금이 5백달러로 너무 비싸기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에니시목사는『모든것이 빠르고 간편하지요. 꽃은 물론 다른장식도 필요없으니까요』라고 컴퓨터결혼식을 두둔한다.

【로스엔젤레스支社】

◇결혼주례를서는 컴퓨터。 컴퓨터 뒤에 서있는 자에니시목사는 결혼의 합법성을 증명하기위해 성혼선언문에 서명하는 일만한다。

美、日에 警報機 도입촉구
韓半島등 東아시아防空강화목적

【東京15日=聯合】 美國은방위역할분담과 관련된 일본의 방공능력강화를 위해 E3A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장비하도록 일본에 촉구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신문들이 15일 워싱턴발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정부당국자는 『일본본토와 주변1천해리해역의 방공강화를 위해 85년까지 AWACS를 12대정도 배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80년대 미일군사협력문제에서 AWACS의 일본도입이 중요과제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소련군의 동아시아진출이 현저한 상황하에 일본의 방위역할분담은 방공능력강화이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책은 방위적 성격의 무기로서 인접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않는 AWACS배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본에 AWACS가 배치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3국간의 유기적인 군사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소련의 침략억제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加 석유試錐船침몰
北大西洋서 승무원 84명 전원溺死한듯

【세인트존즈(뉴펀들랜드島)15日로이터=聯合】 세계 최대의 반잠수식석유시추선인 오션·레인저호가 14일밤 작업중이던 뉴펀들랜드섬 부근 북대서양상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침몰, 승무원 84명 전원이 익사한것으로 믿어진다.

[illegible] 1백75 [illegible] 해리 떨어진 대서양상에서 조업중이던 오션·레인저호가 시속 1백35km의 강풍으로 침몰하기 시작한후 승무원들이 15일 상오3시(한국시간 하오6시) 구명보트로 탈출했으나 [illegible] 한척이 전복, 수미상의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어떤 생존자가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승무원들은 개인구명장비를 갖고 있으나 북대서양의 얼음바다에서는 불과 1시간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션·레인저호 전복 수시간후 4척의 예인선과 2대의 비행기가 사고해역으로 급파되었으나 높은파도와 강풍으로 승무원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大統領딸 희롱했다고 구타"
마노톡, 被拉에 마르코스關聯 암시

【마닐라13日UPI=聯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딸과 비밀결혼한후 공산주의게릴라들에 의해 납치된지 42일만에 구출된 농구코치 토머스·마노톡씨는 자신이 공산주의게릴라들에 납치됐다는데 회의를 표시했으며 납치범들은 자기가 『마르코스 대통령의 딸을 희롱하고있다』면서 모욕을 주었다고말한것으로 마노톡씨의 가족소식통들이 13일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마노톡이 구출된후 가족들에게 납치범들은 자신을 구타하면서 『왜 대통령의딸을 희롱하고 있느냐』고 계속 물었다고 말했으며 한소식통은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난것으로보면 그가 자신의 구출이 조작극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마노톡은 지난해 12월29일 대통령의 딸과 저녁식사를하고 오던중 납치되어 지난8일 정부군에의해 구출됐으며 그의 납치범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신인민군(NPA) 소속이라고 주장했으나 NPA는 자신들의 관심은 납치에 있지않다면서 납치사건연루를 부인하고있다.

소식통은 마노톡은 석방되기 10일전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식을 제공받아 구출될때는 살이 찌기도 했으며 구출순간 단지 5분동안 총소리가 들렸을뿐 정부측이 발표한것처럼 격렬한 전투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메아리

花信

입춘에서 보름, 19일의 우수를 앞두고 봄빛은 한결 짙어졌다. 우수는 눈에서 비로 바뀌고 눈이나 얼음이 녹아 흐른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 가 보면 팔당댐을 경계로 하여 하류의 흐름은 얼음을 볼수가 없는데 양수리를 끼고 서로 만나는 남한강과 북한강에는 아직도 얼음이 은판처럼 깔려서 따사론 햇볕에 부신다.

강에는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난 북쪽의 철새들이 더러는 날아가고 또 일부는 남아 있는것인지 [illegible] 무렵 보다는 드뭇해졌다.

그러나 강기슭에 늘어선 이태리 포플러의 멋적게 드높기만한 가지에는 수액이 올라서 윤이나고 그 윤이나는 가지 언저리에 낮한때는 아지랭이가 출렁인다.

이제 동지무렵에 비기면 해가 길어져 하오6시가 되어도 환하고보니 직신대는 추위도 [illegible] 멀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

아직은 때가 올라 충충해진 겨울 코트를 훌훌 벗어버리고 산뜻한 봄치장을 하기에는 날씨가 차지만 방안 유리컵에서 콩나물 같이 흰 뿌리를 수북이 내리면서 피어난 히아신스의 은은한 향내와 대하고 있으면, 마음은 동백이나 유채꽃이 피었을 먼 남쪽의 화신이 궁겨워 진다.

본격적인 화신은 아무래도 벚꽃철이 되어야 다가서게 되는 것이지만 이맘때는 뜰의 매화가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기상대의 발표나 신문의 날씨난에 공연히 마음이 쏠린다.

잔설이 응달에 남고 불어오는 바람결도 그대로 차서 들에선 나물을 캐는 처녀도 보기 드물고 그럴 철도 아닌데 TV화면에 비치는 시장머리의 광경은 온갖 봄나물이 풍성하다.

상에 오르는 이 봄나무새들의 산뜻한 맛은 온상에서 인공으로 가꾸어진것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자연속의 봄입김을 풍겨주는 절계의 전령처럼 반갑다.

앞으로 몇차례 늦추위의 심술이 직신대고 봄눈과 봄비가 섞바뀌며 내리다가 언 땅이 검붉게 해토되면 거기서 파릇파릇 새나무새가 싹트고 뒤따라 한발한발 북상해 오는 화신과 함께 열띈 화창한 봄을 지금부터 반기고만 싶다.

波국민反軍政저항高潮
당국선車輛운행중지등보안強化

【바르샤바15日UPI=聯合】 계엄통치에 항의하는 폴란드국민들의 저항은 1백94명의 체포사태를 몰고온 포즈난시의 데모와 함께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와동시에 폴란드계엄당국은 포즈난시의 민간자동차운행과 은행업무를 중지시키고 영화관과 극장등 오락시설을 폐쇄하는등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폴란드관영 PAP통신은 5·98kg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 [illegible] 개가 서부 [illegible] 발견됐으며 이 폭탄은 대량살상을 유발할수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海外토픽

高麗인삼은 醫藥品
★日최고裁判所최종判決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전해온 한약으로서 일본대중에게 약효가있다고 인정되었으며 따라서 의약품이다』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는 15일 고려인삼이 의약품이냐 아니면 단순한 건강식품에 속하느냐의 논쟁에 종지부를찍는 최종판결을 이같이 내렸다.

이야기의 발단은 지난78년 고려인삼 농축액을『고혈압과 신경통에좋다』며 팔아온 시모노세끼(下關)시의 판매원 쓰가하라(塚原)씨가 약사법위반으로 고소된데서부터 비롯됐다.【東京=AP】

日貨2百만엔 뿌려
★日離婚女 백화점서

東京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대낮에 느닷없이 『돈비』가 마구 쏟아져내려 이곳 점원들과 고객들이 한때 어리둥절.

『돈비』를 내리게한 화제의 장본인은 올해 41세의 미세즈A라고만 밝혀진 이혼녀였다.

그밖의 신원이라고는 하나도 알려진 것이없는 이 여인은 주말을 맞아 붐비는 고객들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백화점에 돌연 출현(?), 고객틈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2백만엔(한화6백만원상당)가량의 1만엔권지폐를 무수히 뿌려대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점원들은 이 돈을 줍느라고 진땀을 뺐다.【東京=時】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한국일보를 구독하십시오.
원하시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신청 : (416) 533-2361

한국일보—토론토 사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주식회사 황웅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844, 8845(B), 286-1548(R) M3B 1Z3

NO. 5248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8>

共和黨 事前조직 內幕 ③

春秋莊의 密封교육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미 조국근대화의 사명을 다하기로 맹세한 우리 再建同志會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중흥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위해 철통같은 정신무장과 아울러 이론무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동지들은 모두 5·16 혁명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民政에서 조국 近代化작업에 앞장서야하는 선택된 엘리트라는것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5·16으로 시작된 戒嚴하의 삼엄한 분위기가 아직도 서울 시내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62년4월。 종로구 益善洞 뒷골목에 자리잡은 어느 음직한 저택의 한옥구석방에서는 이런 說敎調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리고 있었다。

30~40代신사 10여명씩

방안에는 10명 남짓한 30~40대의 건장한 신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강사의 말에 열심히 귀를기울이고 있었다。

복장의 차림새나 용모로 보아 무슨 직장의 재교육을 받는 사원들 같지는 않고 상당한 수준의 지성을 갖춘 엘리트의 특수교육이란 인상도 없지 않았다。

新黨의 事前組織이 기본골격을 갖추면서 착수된 소위 「密封敎育」의 현장이다。

「東洋化學株式會社」와 「接見室」의 포섭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身分조사와 엄밀한 심사를 받았지만 「정치의때가 묻지 않은 참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심간부당원으로서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야 했다。

半강제적인 승낙을 받아낸 사람들에게는 안정된 분위기를 잡아주고 아직도미심쩍어 망설이는 이에게는 확고한사명감과 선택된 엘리트의식을 注入시키기위해 특수교육이실시되어야 한다는게 新黨추진브레인트러스트의 腹案이었다。

소위 「8·15計劃書」에 따라 이 특수교육은 중앙의 기간조직이 1백명선으로 늘어나고 市道黨조직의 기본세포가 어느정도 틀을잡은 그해4월부터 시작되었다。

◇軍政시절 지방시찰에서 주민들과 환담하는 朴正熙의장。 朴의장은 62년 8월어느날 新黨사전조직의 밀봉교육현장을 방문, 브리핑을 받기도했다。

옛날엔 林和秀의 집

이듬해혁명주체들의분열、共和黨創黨전후의 內紛과진통 그리고 民政이양을위한 선거전에서 숱한 말썽과 是非를 불러일으켰던 소위 사전조직의 密封敎育은 益善洞의 현 「梧珍庵」이란 요정에있는 「春秋莊」(당시)이란 고급요정의 前歷이 있는 저택을 빌어 실시되었다。 인근주민들에게는 自由黨시절의 연예계깡패 林和秀의집으로 더욱 잘알려진 이집은 지금도 「옹」이란 이름의 살롱으로 면면히代를 잇고있다。

半洋半韓式의 建坪80평、대지3백평이 넘는 이저택은 변호사를하던 주인姜某씨가 拉北된후 계속 고급요정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기관계통사람들이 즐겨다니던곳으로 알려지고있다。 이고급요정자리가 엄중한 정당원의 비밀교육장소로 둔변한것은 보안유지를위한 僞裝術때문이었다。

당시 姜변호사의 부인 朴여사가 증권파동으로 한창 「株價」가 올라가던 尹某씨에게 맡겼고 尹씨는 이를 사전조직의 밀봉교육장소로 사용토록 한것이다。

비밀훈련이 처음 시작된곳은 春秋莊이었지만 당원확대와함께 교육훈련도 장소를넓혀 다른곳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金鍾泌 씨 의라이벌로 사전조직을 內査했던 수사책임자인 K씨는 『春秋莊이외에 李承晩 대통령이 8·15직후귀국해서 한때 칩거했던 麻浦의 별장에서도 교육을했다』고 말했다。

당시 「카네기홀7人」의 멤버로 교육훈련을 맡았던 K씨(前8·9代의원)는 『처음부터 두군데서 실시한것은 아니고 마포는 뒤에 마련된것』이라고 증언했다。

나중엔 여러곳에서

당시 金鍾泌 씨 다음으로 사전조직의 責任者였던 L씨(前7·9·10代의원)는 『本據地는 春秋莊이었고 교육도 點조직처럼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을것』이라고 여러곳에서 밀봉교육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있다。

훈련원의 원장은 당시 모기관 判斷위원이란 직함을 가진 尹天柱씨(당시 高大교수·前문교장관)였고 金成熺(서울大교수) 裵尚鎬(中央大교수) 李永根씨 등이처음 강사로 나서다가 나중에는 교수요원훈련과정을 거친 대학강사출신들이 많았다。

被교육자들은 중앙의 기간요원과 각 市道의 조직요원들로 4~5월 두달동안에는 중앙、6~7월 두달동안에는 지방요원 1백50명이 교육을 받아 나갔다。 10여명이 한꺼번에 入所하여 각자 獨房에 유숙하면서 1주일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芮春浩(당시 東亞大강사) 朴奎祥(″) 金弘植(당시 法制處次長) 盧明植(″ 內務部 지방국장) 鄭泰成(″ 忠淸大강사) 金宇榮씨(변호사)등이 6~7월사이에 이곳을 거쳐갔다。

교육내용은 「政黨論」「한국정치狀況分析」「5·16의 革命理念과 그이념 계승의 意義」「新黨의 組織原理」등 간부黨員으로서 갖춰야할 정치 素養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외에 民政에 참여할 前衛隊로서의 사명감을 고취 注入시키는 특수교육의 내용도 있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전조직이 도중에 탄로나자 기밀서류와 교과과정이 불태워져 버리고 당시 관계자들도 이점에 관해서는 「밝힐것 없었다」는 술회여서 확실한것을 알도리가 없다。

講義方式싸고 論難도

특수교육의 내용과함께 論難된것이 교육방식。

철저한保安…온돌방에서 10여명씩 講師얼굴만 쳐다보고 옆은 칸막이

巨物간첩 黃泰成관련 風聞으로 큰 물의 빚기도

◇密封교육의 本據地「春秋莊」。 고급요정으로 代를 이어오던 이집은 自由黨때 林和秀가 살았고 지금도 고급살롱으로있다。

당시 사전조직을 內査했던 한책임자는 『한방에 여러사람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被교육자들은 강사만 볼수있고 서로 옆사람이 보이지않게 각자 칸막이를 했고 요강까지 따로 옆에 비치할 정도였다』면서 『교육시간은 주로 어두운 때를 이용했다』고 密封교육방식을 비난했다。 이와곁들여 일부에서는 공산당식밀봉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직접 교육에 간여했던 K씨(前의원)는 『처음 사람을 포섭할때는 本人이외의 다른 사람이 모르게 點조직의 방식을 採했지만 훈련시킬때에는 오히려 同志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서로 알고지내도록 40명씩 합동교육을했고 잠은 방마다 10명씩잠을재웠다』고 밝혔다。

당시 간부교육코스를 거쳐간 K씨의회고。 『그때까지 정치하면 으레 派閥的으로 싸우는것、소란한 것、권모술수와 부정과 흑막이 날뛰는것으로 알고있던 터에 새로운 시대의 근대정당을 만들겠다는데 흥미를 느꼈고 참여했지요。 교과내용도 요즘같으면 교과서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지만 당시로서는 매력적이었지요。 다만 정치활동 금지기간에 야당이 알세라 몰래 교육을 한것이 문제가됐지 무슨 특수정치공작이나 다른비밀 교육을 가르친 것은 결코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교육이 철저한 密封注入식이었다는점에서 나중 北傀巨物간첩 黃泰成과의 관련說이 나돌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다。 소문으로는밀봉교육 點조직방식등을 특징으로하는 사전조직은 黃泰成에 의해 실시된것이다라며 밑도끝도없이나돌았다。 이와곁들여 그렇지않아도 말썽이됐던 사전조직은 바로 공산당식으로 이뤄졌다는 추측이돌았다。

관계자들은 一笑에

간첩 黃泰成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시민을 놀라게한 경위는 民政이양을위한 5代 대통령선거를 한달앞둔 63년9월25일 이었다。 이날 야당이주최한 소위 공명선거투쟁위 강연회장에서 「救國청년同志會」란 이름으로 朴正熙의장에 대해 『黃泰成사건의 全貌를 국민앞에 공개하라』는 13개항목의 비라를 뿌린데서 발단된것。 이를 계기로 黃사건은 당시 思想논쟁과함께 대통령선거를 어수선하게했다。

비라를 뿌린 5명은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되었지만 이들후엔 許政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공화당의 특수교육은 민주사회에서는 볼수없는것』이라며 이와관련、黃泰成사건을 석연히 밝힐것을 요구했다。

다음날(28일) 관계기관은 黃泰成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도중 말썽나자 機密서류·教材 불태워 全貌는 베일에

즉 黃은 延禧專門2년 중퇴하고 日帝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활약해오다가 8·15후엔 조선공산당 慶北道黨조직부장으로 소위 10·1폭동사건의 주동자로 도피、월북했다。 그후 북괴貿易副相을 지내다가 위장 평화통일선동、反美사상고취、요인접촉등의 지령을 받고 南派됐다가 逮捕됐다는것。

61년10월 당시 黃은 반도호텔에서 수사관에게 범행일체를、자백하고 『南北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러왔다』고 엉뚱하게 말했으며 즉각 軍裁에 회부됐다는등의 내용이다。

金鍾泌씨와 黃泰成과 共和黨을관련시킨 풍문이 그때 처음 나왔을때에는 革命主體세력안에 親金鍾泌씨계와 反金씨계간의 反目과 갈등으로 인한 모함정도로 가볍게 넘기곤 했던것이다。

당시共和黨의 사전조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얘기를 끄집어낼 가치조차 없는것이라고 一笑에붙이고 있다。

『비밀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點조직으로 하다보니 공산당식이란 욕도 먹고 그런 풍문도 나온것 같다』는게 당시 교육책임자의 1人인 L某씨의 얘기이다。

아뭏든 黃과 사전조직과의 관련說은 당시 어지러웠던 주체내부간 마찰、사전조직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세전략으로 더욱 확대 번져나갔던것 같다。

黃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63년12월14일 총살형이 집행된 후에도 일부에서는 黃의 월남후 동태와 처형경위를 日可日否하기까지 했다。

어떻게보면 간첩 黃泰成을 둘러싼 갖가지 억측들은 공화당사전조직이 빚은 뜻밖의 口舌數이자 부작용이라는게 사전조직관계자들의 주장이다。

高位層에 動態수상보고

「再建同志會」가 이처럼 극비리에 조직확대를 꾀하던 당시 모기관에서는 이 비밀工作을 두고 웃지못할 寸劇이 하나 발생했다。

據點分散으로 각부처가 사무실을 옮길 무렵 모기관 고위층에 이상한 怪정보가 날아들었다。

서울시내 몇몇 군데에서 正體不明의 청년들이 무슨 工作을하는 모양인데 그動態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정보보고였다。

이보고를 접한 모기관 고위층은 『보통때도아닌 軍政의 계엄하에서 무슨 그런일이 있을수 있단말이냐』고 놀랄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사전 조직작업의 보안은 철저했다。

그러나 이정보보고가 수사계획과 아울러 金鍾泌 씨 에게 보고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正體」(?)가 드러난것이다。

金 씨 은 『그들은 특수임무를 띤 요원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해명을 겸한 지시를 내린것이다。

點조직의 保安조치가 얼마나 철저했느냐를 보여주는에피소드이다。

그러나 그처럼 「保安의 鐵壁」을 자랑하던 保安조치도 이사건을 고비로 金鍾泌 씨 의 라이벌이었던 金在春 모부대장겸 합동수사本部長의 정보망에 걸려들어 「사전조직」의 是非가 시작된다。

【特別取材班】

新風土記

27萬명의 잔치

<忠南 唐津>

줄다리기 前後에 令旗·農樂도 등장 民俗祭典으로

李文熙 >作家<

國守亭에서의 전야제가 있은 다음날부터 이 민속제전은 본격화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이 「智와勇」을 다하여 기량과 힘을 겨루는 것이다。 먼저 각기 令旗를 앞세운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며 차례로 입장 행진한다。 모여드는 令旗의 숫자가 수백개에 달하고 이를 따르며 환호하는 군중도 수만명을 헤아린다。

옛날이니까 수만명이지、최근의 행사때에는 무려 17만명의 인파가 몰렸었다고한다。 이 잔치를위해 道費에서 그때 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주었던 어느 도지사가 행사에 초빙되어 그날의 盛況을 목격하고는、이럴줄 알았더라면 좀더 많은 지원을 했을 걸 하고 퍽 애석해 하더라는 후일담도 들리는 것이다。 아뭏든 농악과 군중의 환호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에는 「고을이 들썩 한다」는 옛말이 그대로 實感난다고 한다。 농악경연에 대한 시상은 등급에따라 크고작은 農牛 한마리씩。

그 다음날이 바로 이 민속 제전의 본 마당인 줄다리기인데、줄을 당기기 전에 시내에 미리 만들어 놓은 동아줄을 경연장소로 옮겨가는 과정이 또한 장관이라고 한다。 직경1m、길이 2백m짜리 「地上最大의 藁工品」을、수천명의 인간이 달라붙어 개미役事를 하는 식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여기에도 엄격한 격식과 절차가 따르게 마련이다。

줄다리기는 32번선 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을 水上·水下의 두패로 나누어서 겨루게 하는것。 총소리(옛날에는 북소리)를 신호로 하여 一進一退의 당기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동회에서의 승패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결판은 빨리 나는 수도 있고 더디 나는수도 있다。 그리하여 승자쪽 참가자들에게 역시 農牛로서 시상을 하는데、참가자 개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들고 나온 令旗를 대상 표준으로 한다。

줄은 암줄과 수줄이 하나로 이어져서 2백m 길이에 뻗치는데 행사가끝난 후에는 암줄과 수줄이 접합되는 매듭부위가 수난을 겪게 된다고。 불임증으로 고민하는 이、아들 낳기를 원하는 이、혹은 신경통이나 허리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매듭부위를 잘라다가 달여먹으면 효험을 본다고 하여 아우성치며 덤벼드는 까닭이다。

『행사의 뒤처리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준비하는과정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동아줄을 트는 데 드는 볏짚만 해도 수만뭇이나 됩니다』

이 행사의 추진에 항상 앞장서왔던 李禹永씨는 그동안에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허심탄회하게 웃는다。 성과는 아직 크게 내세울만한 것이못되지만、그러나 노력한 만큼의、어쩌면 그 이상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4월1일부터 나흘동안 이 민속행사를 거행할 예정인데

◇國風때의 줄다리기。 이때 사용한 줄도唐津郡松岳面機池市里에서 만든 것인데직경 1m、길이 2백m의 줄을 서울로 옮겨오는데 대형 트레일러 2대가 동원됐다。

이에 대하여、『軍官民 남녀노소가 통틀어 참여하는』 『전통문화 계승에 의한 민족 단결의 상징으로서』 확대 발전시키겠노라고 포부를 말한다。

근래에 와서는 비단 줄다리기와 농악경연만이 아니라 활쏘기와 씨름대회(참가자격 제한없음)도 같은 기간중에 병행실시하고 있고 노인이나 장년층을 위한 시조대회도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고한다。

지난번 國風 출품때의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李禹永씨는 여러 소리를 늘어놓을 것 없이 단적으로 한가지만 얘기하면 족할 것이라는 전제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꼭 출품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준비를 시작했지요。 아뭏든 우리 기지시의 동아줄은 그걸 제작하는 데 보통 인력과 재료가 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격대로 그 큰줄 두개를 정성껏 만들어놓았더니 이번에는 그것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문제가 난감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웬만한 화물차로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고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트레일러 두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 그 트레일러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 일을 선약받고 있어서 차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차 두대가 와서 동아줄 2개를 서울까지 실어가긴 했지만요』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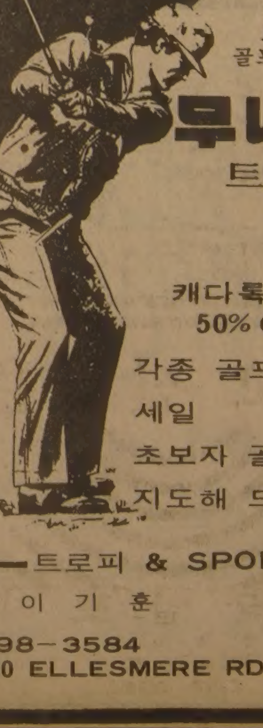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休戰會談의 통역관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⑤1

해군正裝의 별마크…准將오인

한국동란에 관해 잊지못하는 이야기가있다. 내가 東京의 태평양지구사령부에 근무할때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분석, 폭격대상을 선정하는일을 도와주었다.

이때 미군비행기는 공산군의 빨간깃발을 표적으로 삼았다。사진촬영 결과 한국농가에는 어쩌면 그렇게 빨간 깃발이 많이 널려있는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이른 가을철 시골에 갔을때 김장철에 쓰려고 빨간 고추를 지붕이나 멍석에 널어 놓은 것을 많이 보아온 터라 사진에나온 빨간 표시는 공산군의 깃발이 아니고 고추를 말리고 있는 장면임을 알려주었다. 군작전에는 충분한 분석과 자문이 선행되기 때문에 오폭이야 있을리 만무하지만 고추를 널어놓는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볼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곤 한다。

나는 한국전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2년여간 수석통역관으로 근무했다。유엔군측 대표인 조이중장이 미해군제독이었기 때문에 해군인 내가 추천되었던것 같다。동생 得漢은 휴전회담 준비단계부터 통역으로 참석했으나 나는 정식회담이 시작된 뒤에야 수석통역관으로 부임했다 해군정장은 가슴과 소매의 계급장 옆에 큼직한 별마크가 하나씩 붙어있다。

나는 이 별마크 때문에 태평양전쟁당시 젊은 준장으로 오인돼 놀라는 말을 들었는데 휴전회담장에 드나들때도 미군헌병이 처음에는 조이장군인줄 잘못 알고 경례 붙인일도 있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지 얼마안돼 공산군에의해 스파이혐의로 잡혀갔다 풀려난 어린이가있다。그 어린이의 이름은 김원규(당시·12)였다。지나가던 미군지프가 동네어린이들이 서있는것을 보고 캔디를 던져주었는데 김원규어린이는 이를 줍기위해 너무 멀리 쫓아간게 화근이되어 간첩으로 몰려잡혀간 것이다。

◇板門店 휴전회담이 시작된지 얼마안돼 공산군에의해 스파이혐의로 잡혀갔다 풀려나온 김원규어린이。나는 이어린이를 구출、부모의 품에 돌려준일을 지금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北傀측 12歲소년을 "百원받은 스파이다" 억지도

그날 휴전회담이 열린 板門店근처에 다달았을때 한 할아버지가「미군측사령관」이라고 쓴 피켓트를 두손으로 받쳐들고서있는게 눈에 띄었다。

나는 차를멈추어 이할아버지로부터 김원규군의 이야기를들었다。더 자세한 경위를 동네사람들에게 알아보게했다。이튿날 회담이 끝날무렵 어린이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는 부모의 답답한 심정을호소、인간적으로 그 아이를 풀어달라고 했다。

공산측대표는 보름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다른회의가 끝난다음 할말이 있다면서『김원규어린이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군으로부터 돈1백원을 받고 스파이로파송됐다。그런 악독한 행위가 세계적으로 인정된이상 석방해줄테니 앞으로 주의하라』는 것이었다。도대체 돈1백원을 받은 스파이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당시 자유세계 기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었다。

이사건이 있고부터 회담소의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경비도 삼엄해졌다。

휴전회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같은 경색된 분위기를 나는 처음경험해보았다。공산측대표들은 심지어 의자위치를 놓고 시비를 벌이기도했다。

양측대표들의 토론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랐다。유엔군은 휴전선 책정과 포로교환 문제를 토론하자고하면 공산군은 휴전선 책정은 제처놓고 방법을 논의하자고나서는가하면 모든 포로를 무조건 교환하자는 엉뚱한 논리를 펴는등 억지를 부렸다。

板門店의 通譯戰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⑤2

言語의 表現…전달어려움 痛感

한국전 휴전회담의 통역을 맡으면서 한나라의 말을 다른 말로 옮겨 표현한다는 일이 결코 기계적으로 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통감했다。

휴전이란 한국말자체도 영어로는 [armistice]·[truce]·[ceasefire] 세가지나 된다。양측대표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올바른 통역이 될수가 없다。특히 板門店회담은「통역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격렬했다。

나는 양측대표자들이 말하려는방향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유리한때도 있었다。공산측대표가 한국어로 말하는 동안 중요한 사항을 미리 유엔측대표에게 알려주었고 때로는저쪽에서 무슨말이 나올거라는것까지 예상해낼수도 있었다。

공산측대표들은 아주 억지를 부렸다。어제한말을 오늘 달리하고 이랬다 저랬다 걸잡을수없었다。이럴때마다 유엔측 대표는 지붕위에 매달아놓은 풍향기 (Weathervane)처럼 웬 변덕이냐며 어이없어했다。

풍향기란 말이나올때 통역은 마침 동생 得漢이 맡았는데 미국에서는 풍향기를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Weathervane가 눈에잘 띄지 않아 무어라고 통역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때 얼른 떠오른말이 베르디작곡 리골렛토의 「여자의 마음」에나오는「갈대와 같다」는 대목이었다。억지를 부리기위해 이랬다 저랬다하는것은「갈대와 같다」고 통역한것이다。

한국어로 한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 영어로는 두가지일수도 있고 영어의 한단어가 한국어로는 2개이상의 뜻을 가지기도한다。

예를 들어 영어로「informal」이란 말은 한국어로는「비현실적」 또는「비공식적」이란 두가지 뜻을 가진다。우리측이 이말을쓸때는 의자등은 자리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다투는등 어떤형식에 메달리지말고 인간적 대면을 하자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그말이「비공식적」이라면 상대할수 없다는등 [official]로 확대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 지기도했다。

한번은 양측간의 회담분위기가 매우 경색돼 북한대표 이상조는 마구

◇유엔군측 휴전회담대표 조이중장으로부터 훈장을 받은때의 필자。

「이랬다저랬다」뜻 風向器、「갈대」로 옮겨보기도

반말을 썼다。사실상 영어는 존경어가 따로없듯이 반말이란 것도없다。유엔측대표야 그냥 영어로 답변했지만 나는통역할때 반말로 옮겼다。

북쪽대표는 계급이 소장인데비해 나는 대위에 불과했지만 유엔대표는 해군중장이었기때문에 내통역은 어디까지나 대표자간의 의사전달이란점에서 반말로 응수할수 있었고 또 당연했다。

그랬더니 공산측은 통역을 한다고 금방 항의했다。유엔측 대표는『우리통역관은 올바르게 통역한다』고 일축해버렸다。

공산측 통역관인 설정식은 우리가 옆에서 들어도 통역이 틀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우리쪽의 발언을 악독한 표현으로 저쪽 대표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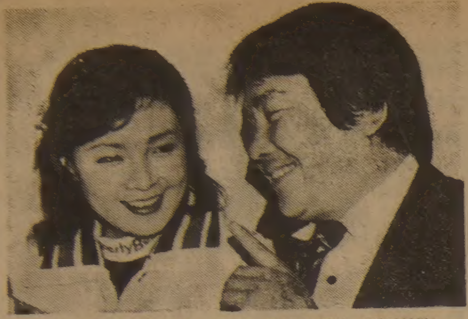
그는 모학교 영어교사로 있으면서 비밀리에 서울좌익계 학생도를 해오다 6·25때 월북한 사람이었다。일부러 그런 통역을 했는지 기술상의 문제였는지는 확실치않다。

이를 지적하자 북쪽대표가 그의 통역을 중단시켜 동생 元得漢중위가 양쪽 통역을 다맡은 적도 있었다。

미국사람들은 비밀이없이 내마음을 털어놓았다고할때 흔히 all my card on the table이라고 표현한다。한국에서 기차란 말을 중국에서는 화차라고 쓴다。한국에서 자동차가 중국에서 기차가된다。

휴전회담장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국어가 사용됐다。all my card on the table이란 말과 기차란 단어가 板門店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板門店통역은 전쟁의 연속이나 다름없던「통역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을 뿐이다。

우리는 콤비 「쇼쇼쇼」의 MC 허참·鄭少女



◇3년만에 다시만난 허참과 鄭少女 콤비。「말의성찬」속에서「영상의화음」을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펼친다。

봄의 密語 풀어내듯 훈훈한 情感

봄의 훈향이 맴돌던 밀어를 풀어내는 것 같다。「쇼쇼쇼」의 MC 허참(34)과 鄭少女(29)가 1천일의 별리끝에 다시 정담을 나눈다。그 속삭임은 시청자의가슴에 훈훈한 정감을 심어주는「말의 성찬」이다。

76년 前TBC·TV쇼프로「쇼쇼쇼」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鄭少女의 결혼(79년)으로 헤어졌다가 지난 1월말 다시 만나 옛정을 되새기고 있다。

『미스정이 결혼할때는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마음이었지요。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했는지…』

허참의 말에 鄭少女도『정말 자상한 오빠곁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그래서「쇼쇼쇼」를 한번도 빼놓지않고 보았지요』하고 응수한다。

『그동안 몇명의 파트너가 거쳐 갔지만 미스정만큼 호흡이 맞고 부담없는 짝은 없었다』는 허참。『MC는 말재간도 중요하지만 재치있는 말과 영상의 앙상블이 앞서야 한다는것을 쉬는 동안 느꼈다』고 鄭少女는 말한다。

鄭少女는 허참과 헤어져 가정생활을 하는동안 온갖 루머에 시달렸다。

『저도 소문은 들었어요。어처구니없고 허무맹랑한 얘기예요。처음엔 무척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소문이 진실을 바꾸어 놓을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정을 찾았지요』

鄭少女는 자신의 컴백이 결혼생활의 파경에서 온것이라는 소문도 들었다며 웃는다。

3년만에 함께 카메라앞에선 鄭少女에게 허참은『그동안 원숙미가 물씬풍기는 여인으로 변했지만 앙징스런 모습은 옛그대로』라고 말한다。鄭少女는『허참씨와 함께 진행을 맡으니 친정에온듯 마음이 차분해진다』며 편안한 표정。

오누이처럼, 혹은 연인처럼 격의없이 대화를나누는 허·鄭콤비。『앞으로 30년간 함께무대에 서고싶어요。함께 연극도 하고 뮤지컬, 노래도 했으면…。백발이 될때까지 말예요』【李】

스타

美「1百스타의밤」大盛況
募金額도 2백만弗 달할듯

미국의 인기스타 2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인「1백스타의 밤」이 발렌타인·데이인 14일 뉴욕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거행됐다。「미국배우기금」창설1백주년을맞아 열린 이날의 모임명칭은「1백스타의 밤」이었으나 스스로 참여한 스타들로 2백여명이나 됐다。

이날모인 기금은 캐브런너스홀 5천8백82석이 모두매진돼 (입장료 50~1천달러) 최저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에 달할것으로 추산되는데 배우들을위한 요양원건립기금으로 쓰여질 계획이다。

출연한 스타들은 3시간에 걸쳐 노래·춤·연기등 저마다의 특기를 보여주었고「은막의 애인들」이라는 15분짜리 몽타지영화가 상영되기도했다。한편 전직배우였던 레이건미국대통령은 기금에 공헌한 공로로 특별메달을 받았는데 행사에 참가하지는 않았다。ABC·TV는 행사광경을 4백만달러를 지불하고 재방영권을얻어 오는3월8일 미국을 비롯한 영국·멕시코·프랑스·이탈리아등에 방영할 예정이다。【외신】

地方短信

直行버스 멋대로 停車
市內버스운전사와잦은是非

【堤川=鄭】충북堤川지방을 경유하거나 堤川시내에서 서울·原州지방으로 운행하고있는 직행버스들이 정류장이 아닌 허가나지않은곳에 정차하면서 승객들을 태우며 시내버스들과 잦은 말썽을 빚고있다。

제천교통시내버스회사에 따르면 堤川에서 출발하거나 堤川을 경유하는 原州·서울로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들이 하루 상행 60회 등 모두 1백20회 왕복운행하면서 정류장이 아닌 堤原郡鳳陽面구학리 탁사정길에서 멋대로 정차、시내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이곳을 운행하는 堤川시내버스들은 승객들을 빼앗겨 본두 직행버스들에게 빈차로 운행하기가 일쑤여서 시내버스운전사들과 직행버스운전사들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蔚山·溫山工團活氣
14개工場新·增設中

【蔚山=鄭】蔚山공단과 溫山공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공장신·증설이 활발하다。

16일 蔚山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현재 공장신·증설공사를 하고있거나 연내착공할 회사는 曉星바스프·京畿화학·高麗화학등 14개공장에 이른다는 것이다。

價格表示制등 推進
忠南 運動지침示達

【大田=鄭】충남도는 15일 생활의양과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정착등을골자로한시장새마을운동지침을 마련、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流星의 賊 <31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⑧

무장 황진(黃進)은 김성일의 의견이 조정의 움직임으로 결정됐을 때 흥분했다。여러 정신들을 앞에서 웃소매를 걷어 붙이며 외쳤다。

『황윤길、허성같은 유약한 사람들도 적정(賊情)을 옳게 판단했는데 황차 김성일같은 명민지사(明敏之士)가 서태의 진의를모르다니 될 말이기라도한가。이건 분명히 사악한 심술의 탓이다。수길의 답서가 오만 상국(上國)을 범하겠다는 부도한 말이었다。그 부도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할 줄도 모르고 받아온데 대해 죄(罪)를 당할판 해서 꾸민 교묘한 수단이다。이런 자를 가만 둘 수없다』

그리고 황진은 김성일을 처단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려고까지 했으나 주위의 만류가 간절하여 그만둔 일이 있었다。

이무렵 이영이 홍계남에게 물었다。

『황사와 김사의 말이 각각 다른데 홍공의 뜻은 어떤가』

『황사의 의견대로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김사의 뜻도 짐작할만 합니다』

홍계남의 대답은 이렇게 어색했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고 할일이지 그 답이뭔가』

『본대로 들은대로라면 수길이 병화를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그러니까 황사의 의견이 옳은 거지요。한데 일본의 국정을 살피건대 일본이 전쟁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백년지난후에 이제 겨우 평화를 얻었다고 하나 상류(上流)의 화미(華美)에 비해 하층민의 생활은 도탄(塗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러한즉 정상한 마음으로선 병사(兵事)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황사(黃使)는 사실을 사실그대로를 보고 일본의 침범을 예측하는 것이고 김사(金使)는 일본의 속사정을 살피고 침범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양인 모두 정을 친 셈인데 길고 짧은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요』

『그래 홍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자네가 정사를 한다고 치고 말이다』

『방비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 때문에 민생을 사경(死境)으로 몰아넣는 경우가있어선 불가할 것이 아니오이까。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준비했다가 일이 없으면 지나친 낭비가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지만、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방비를 소홀하게 했다가 일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큰 화를 입게될 것이 아닙니까』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에 쳐들어 올만한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던가』

『항구마다에서 배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듣건대 서양의 어느나라에서 대선(大船)을 사들였다고도 합니다。게다가 총포술(銃砲術)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각종 물산도 풍부하다고 보았습니다。승패는 도외시하고 일단은 거사할만한 실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홍공의 말대로라면 큰일이 났군』

하고 이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그리고 나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상감은 전쟁이 없는 것으로 치고 있어。그런데 대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진언할 수도 없구、김성일같은 출중한 사신이 한 말을 일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극구 부정할수도 없는 입이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8>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㉕

그래서 목이의 어린 날의 추억은 고아답지않게 밝았다。딴착한 일을 칭찬하려고、딴 애가 하기싫어한 심부름을시키려고 목이를 찾을때의 유원장의 목소리는 특히 곰살맞아서 목이는 가벼운 도취감마저 느꼈다。

『오목이는 착하기도하지』『오목아이것좀해줄래?』

그녀는 지금까지도 원장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고 마치 애구멍을 그르렁대며 원장아버지 주위를 맴돌던 어린날을잊지못한다。그러나 그 이전、그 이름을 얻어갖게 된 경위나 그 이름을 그녀에게 지어주었을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해낼수 없었다。그 이전이 완전한 암흑이기때문에 그 이후가 유별나게 밝게 느껴지는지도 몰랐다。

오목이란 그녀의 이름은 그 암흑에서 뽑아낸 단 하나의 빛나는 거였고 거꾸로 언젠가는 그 암흑을 탐색할수있는 단하나의 희망이었다。

「오목이의 집」 아이들은 커서 들어온 몇몇만 빼고는 거의가 다 원장의 성을 따서 유가였고、그것이 가족관계 비슷한 연대감을 형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오가인 목이는 자칫 소외될 수도 있었다。

그런 목이를 위로할 셈이었던지 유원장은 어린 목이가 그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었던가、자기는 또 그 이름으로 어린 목이의 꽉 닫힌 마음을 얼마나 신통하게 열수있었던가를 무슨 옛날얘기처럼 재미있게 꾸며서 들려주기를 좋아했다。

그건 틀림없이 모든 고아가 다 들길 수 있는 옛날얘기는 아니었다。목이만이 들어도 싫증 안나는 옛날얘기였고、유원장과 목이 사이의 특별한 친화감을 확인할수 있는 아기자기한 매개체였다。

한때 유원장과 목이는 공모자처럼 짜릿짜릿하게 통하는 마음으로 그이름으로가족을 찾을수있을것을 믿고 온갖 노력을 다한적이 있었다。

마침 매스컴이 이산가족을 위해 최대의 성의를 보여줄때였다。그들은 오목이란 이름으로 가족을 찾는 광고를 꾸준히 신문방송을통해 냈을뿐아니라 그이름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소리가 있을까 한시도 기대하는 마음을 못버리고 조마조마해 있어야 했다』

목이를 그렇게 부추긴 유원장이었다。때로는 그일에 유원장이 한술 더 뜨기도했다。그가 기른 고아중 나쫌은 친부모를 찾는 경사로 그의 고아원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고、그 사업에 대한 자신의 싫증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고아원 원장노릇을 오래는 못할 것을 미리 알고、훗날 그 일이 말짱 헛수고만은 아니었다고 미소짓기위해 예쁜 동화를 하나 주워 가지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내 목이의 이름이 동화를 창조해주진 못한채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공짜로 그런광고를 취급해주던 언론의 열성은 갑자기 식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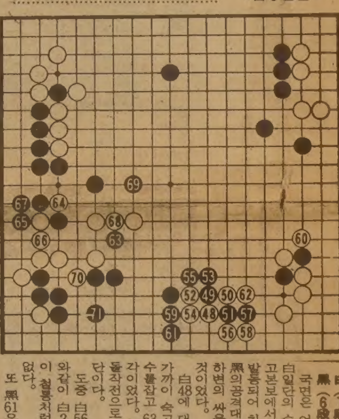
이제 여론의 관심사는 소수의 잃어버린 지난 시간이 아니라 대다수의 약속된 미래의 시간이었다。

『우리도 잘살수 있다』

처음엔 소곤한데 너도 불수있다고 말하는것처럼 허황하기만하던 소리가 문득 실제적인 감흥으로 감전(感電)되고 일단 감전되면 열병을 앓게되는 잘 살수있다의 열광의 시기가 온것이었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4譜 44~71 (갈5시간 덤5집반)



白(7段) 河燦錫<1勝1敗> 黑(6段) 姜哲民<0勝4敗>

국면은 어언 중반전。좌변에침입한 白일단의 수습이 숙제거리였다。그리고본보에서는 姜6단의 무서운 힘이 발휘되어 치열한 공방전을 보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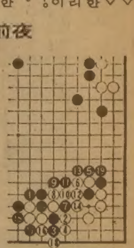
黑의공격대상은 물론 좌변의白일단。하변의 싸움은 그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白48에 대해 姜6단이 黑49를 20분가까이 숙고한것도 실상 黑61까지선수를잡고 63에서 총공격을 개시할 생각이었다。그러니까 黑51、57은 버림돌작전으로서 외곽을 죄어붙이는 수단이다。

도중 白56은 正手。이수를 참고도와같이 白2면 黑3이하19까지 외곽이 철통처럼 싸발려 白은 견딜도리가 없다。

또 黑61은 白62와 교환되어 손해이긴하나 역시 黑63을 위한 희생타。

黑, 總攻擊 前夜



河7단도 10분가량 생각을한다。그리고 白64로 끊는 유일한 타개책을 발견했다。黑은 69쪽에서 추격하더니 白70의 응수타진수에는 곱게 黑71로 하변을 강화한다。말할것도 없이 白馬공격의 대작전에 대비한 것이다。

자、白은 어떻게 타개 내지 탈출하려는지。河7단으로서는 최초로 맞이한 난관임이 분명해 보인다。【一凡】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경욱
533-2361

JAGUAR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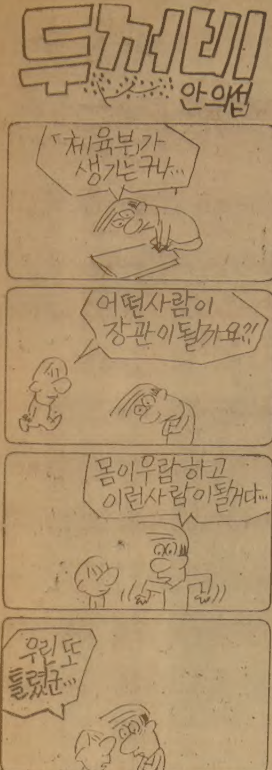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6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
즉석불…
정종, 마…
666 BLOOR S…
TORONTO, …
☎536-86…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朱永炯에 死刑선고

공범 李양10年·高양執猶

地法 潤相군 事件 "情狀여지 없다"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朱永炯피고인(29·전京西中 체육교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中性澤 부장판사)는 16일하오2시 대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朱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금품요구및 살해·사체유기·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자살교사 미수죄등을 적용、구형량을 그대로선고하고 공범 李모양 (18·Y여고 2년)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금품요구·사체유기·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죄를 적용、징역10년을 선고(구형 무기)하는한편 같은공범 高모양 (19·D여고 3년)에게는 범인은닉 도피죄만을 적용、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징역 장기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朱피고인에 대한 검찰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朱피고인은 윤리관념이 전혀없이 교사로서의본분을 저버리고 방종한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제자를 유괴、살해한후 부모와 온국민의 염원을 저버린채 수사망을 피하면서 자신의 안녕만을 꾀해온것으로보아 정상참작의여지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朱피고인이 潤相군을 살해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潤相군이 감금48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호흡이 곤란할정도로 심한 탈진상태에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것으로 보아 단순한 치사가 아니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계획적인 유괴가 아니며 금품을 요구한것도 단순히 수사망을 돌리려는 목적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법규정상 유괴나 금품요구의 목적에는 관계없이 사피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범죄가성립되며▲공범 李양에 대한 자살교사미수부분도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李양이 죽은후 따라 죽으려했다는 朱피고인의 주장이 일부인정되나 같이 죽자해놓고 자신은 안 죽었다면 오히려 죄가 더 중한위계에 의한 살인미수나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이부분역시 검찰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李양에 대해서는 『潤相군유괴에는 가담하지않고 그후 협박전화만했다해도 선행범죄자의 범행을 인식、인용해서 그후 범행에 가담했다면 승계적 공동정범원칙에 따라 그전의 범행까지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미성년자약취유인과 금품요구죄를 함께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기소한 朱피고인의 상습도박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때는 법규정상 벌금병과는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체념한듯한 표정으로 사형선고 순간을 맞는 朱永炯피고인。

朱피고인은 이날 흰상의·회색바지에 수인번호 110번의 수인복을 입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출정、재판부에 공손히 인사를 한후 선자세로 고개를 숙인채 약30분간 계속된 판결문 낭독을 들었는데 사형선고 순간에도 이미 체념하고 있었던듯 두눈을 감았을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담담한표정으로 朱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李양과 高양은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1심공판때 나왔던 潤相군의 부모인 李眞植씨와 金淑慶씨 부부는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試驗紙 유출소동

서울長薰高 인쇄人夫 부주의…재시험

고등학교 기말고사문제가 또 사전에 유출돼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永登浦區新吉洞 長薰高 (교장 李鄕永)는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기말고사 6과목을 모두 무효화하고 16일부터 전과목에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재실시 이유는 지난12일에 있었던 한문시험의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기때문이라는것。

長薰高는 지난12일부터 20일까지 2학년기말고사를 치르기로 되어있었는데 교내인쇄실에서 시험문제를 프린트하던 인쇄소인부2명이 같은중학교2년 金모군(14)에게 시험문제지 파지를 태우도록 시켰으며 金군은 한문과 물리 2과목의 파지를 태우지않고 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인 형(18)에게 가져다 줘 시험지가 유출된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체附設高校生 卒業후에離職사태

忠南紡績 87%나

【大田=聯】 대기업체에서운영하는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함께 무더기로 공장을 빠져나가 많은업체들이 숙련공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충남 大德郡소재 忠南방적의 경우 지난11일 1천1백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16일현재 이중 87%에 해당되는 9백65명이 사무원등타직종을 찾거나 가사일을 돕보기위해 직장을 떠났다는것이다。

이에따라 忠南방적은 3~5년간 기술을익힌 숙련공들의 자리를메우지못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通貨안정證券 발행

이달중 4百億규모

韓銀 통화안정책

시중에 나도는 과잉통화를 흡수하기위해 한국은행은 오는25일 4백억원 규모의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은행과 短資창구등을 통해 일반에매각키로 했다。

16일 한국은행에의하면 이번에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은 기간이 91일짜리、1백82일짜리등 두가지이고 금리는 시장 실세금리로하되 경쟁입찰로 형성되는 평균할인율로 발행키로 했다。

증권의 액면금액은 1백만원、5백만원、1천만원、5천만원、1억원짜리등 5가지종류가 있다。

입찰에 참여할수있는 기관은 은행과 短資、綜金、投信、證券、保險회사등으로 제한하되 은행은 거래선이나 일반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경우에한해 입찰할수 있도록했다。

海警 警備艦 취역

해양경찰대는 16일 상오10시 木浦해경지구대 연안부두에서 최신고속 ○○○톤급 경비함취역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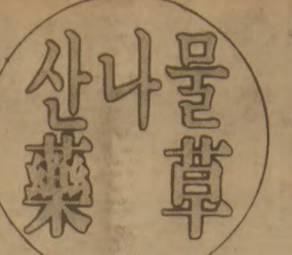
이날 취역식에는 徐廷和내무장관등 2백여명이 참석했는데 국내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이 경비함은 길이81·5m、너비 9·8m、깊이 5·8m로 영해경비와 어선보호、해상범죄처리、해난구조등의 임무를 맡는다。

高淑鍾씨 保釋보류

소송記錄 地檢送付

서울刑事地法

서울元曉路 尹景花씨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가 선고직후인 지난1일 高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신청에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채 16일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서울지검으로 송부했다。



山主임의로 採取토록

買受 국유林産物 처분절차도 簡素化

禁獵 빠르면11월 부분解除

種苗災害 국가補償制 신설

山林廳、산림關係法 대폭改正

국유임산물을 사들인 사람이 해당임산물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임도(林道)개설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됐고 관할영림서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했던 산나물、약초、녹비(綠肥)며루·다래등 수실(樹實)、버섯、만경류(蔓莖類)등의 채취(산림용 종자는 제외)가 앞으로는 산주마음대로 가능하게 됐다。또 지금까지 인정해주지않았던 종묘납품가격의 재해율을 최고2%까지인정、전국1천여 묘목업자들이 재해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 국가보상제가 확립됐으며 상공부와 산림청으로 2원화돼있던 한판관계업무가 산림청으로 1원화됐다。

산림청은 16일 이같은 민원내용을중심으로한 산림관계법을 대폭개정했다。산림청에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평균30만입방m의 국유임산물을 매각처분하는데 이를사들인 사람들이 그산림을 채취·가공·운반하기위한 임도개설과 국유림사용및 훼손허가등을 지금까지 영림서에서별도로 허가받아야했던것을 매매계약과동시에 병합처리하는것으로 간소화했다。

정부가 매각하는 국유림은 주로 포플러와 소나무등인데 수종경신을 위한것으로 수령은 15년~50년생이다。

산림청은 또 지금까지 수령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도장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했던 간벌목(間伐木)에 대해 앞으로는 가슴높이의 직경이 10㎝미만인 나무에 대해서는 허가도장없이도 산주임의대로 반출할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양묘업자 1백30여명、마을양묘업자 7백여명、산림계양묘업자 1백80여명등 전국 1천여 양묘업자들이 묘목을 키우는동안 냉해、한해、병충해등으로 손해를 보는것에 대비、이를 보전해주기위해 국가보상제도를 현실화、묘목가격 최고 2%까지는 재해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지금까지 함판을 2차공산품으로 간주、원목 수입은 상공부소관、제품은 공업진흥청소관、규격및 품질은 산림청소관으로 분산돼있던 함판관계업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시켜 함판의 수급조절과 품질관리를 체계화했다。

산림청은 이밖에 산림관계 민원업무 11개항을 간소화시켰다。

또빠르면 오는11월부터 금렵(禁獵)이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산림청은 지난73년부터 전국(제주도제외)에 걸쳐 금렵조치를 내린이후 10여년이 지나는동안 꿩은 71년에비해 3배、산비둘기는 2배、쇠기러기는 최고8배까지 는데다 일부지역에서는 멧돼지등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극심하자 이같은 결정을내리고 해당조수류의 종류와지역을 선정하기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한고위간부는 『이같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금렵조치를 해제하려 했었다』고 밝히면서 금렵 해제 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될것이며 이로인한 보호조수류의 남획、안전사고 대책등을 마련하기위해 얼마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관계 민원업무 간소화내용

내용	종전	개정
1. 첨부서감축		
▲보전림지전용신청	▲사업계획서외 7종	▲사업계획서외 6종 (임야대장등본생략)
▲국유림대부·사용료신청	▲대부·사용납입영수증사본	▲첨부생략
▲국유 임산물무상양여신청	▲임산물소재지위치도	▲첨부생략
2. 민원처리기간단축		
▲보전림지전용허가신청	▲60일	▲40일
▲보안림손실보상신청	▲90 〃	▲60 〃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	▲25 〃	▲20 〃
▲국유림대부·사용연기허가신청	▲15 〃	▲7 〃
▲국유림대부사용료반환신청	▲30 〃	▲25 〃
▲국유림권리이전허가신청	▲20 〃	▲15 〃
▲산림훼손허가기간연장신청	▲10 〃	▲7 〃
▲입산허가신청	▲2 〃	▲즉시

◇앞당긴 大學생활 案內 대학사회의 변모를 알려주듯 예년과 달리 앞당겨 대규모로 실시되고있는 대학신입생 오리엔테이션。16일하오 장충체육관서 열린 서울大신입생을위한 오리엔테이션 모임에는 학생과 학부모등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大學오리엔테이션 開始

서울大 奬忠體서 學父母同伴 1만여명

漢陽大는 잠실體育館서

82학년도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이 각대학별로시작됐다。

국민학교나 중학교학생도 아닌 대학생을상대로 학부모와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는 상황도 유별나지만 올해에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예년과는 또 다른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있어 변모하는대학사회와 그 배경을 다시한번 되새기게한다。

우선 각대학은 예년에는 일정을 입학식후로 잡았으나 금년에는 입학식전으로 앞당겼고 종래에는 신입생만을대상으로했으나 이번에는 신입생은물론 학부모들까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있다。

또 신입생을 각대학별로나누어 하던것을 전교생을 한자리에모아 실시한후 다시각단과대학별로 나누어 반복하고있다。

이때문에 많은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수없어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외(校外)의 넓은장소를 빌리는게유행이다。

서울大는 16일부터 2일동안 장충체육관에서 신입생6천4백53명과 학부모등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학생활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전체인원을 수용할수없어 16일과17일 2차례로 나누었다。

첫날인 16일에는 인문대·사회대·경영대·미대·법대·사범대·음대등 7개단과대 신입생 3천2백50명과 학부모등 6천5백여명이참석했다。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등록날 12시30분부터 입장、등록시에 학교측에서 나누어준참석표를 제출한뒤 학교측에서 나누어주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규정』등 5가지 책자를 받아들고 입장했다。

林善相 학생과 교육연구관 (40)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5시간동안 진행됐는데 총장의 환영사 기관장소개순으로진행됐으며 이어 교무처장·학생처장등이 학사행정전반에 관한안내를 했다。

이어 대학원장의 「대학의 연구소장과 사명감」및 학생생활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한편 신입생들은 18일부터 20일까지 각단과대학 소계열별로 하룻동안 2차오리엔테이션을 받게된다。

漢陽大도 16일상오10시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신입생 6천여명과 교직원이 참석한가운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延世大는 오는26일부터 28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며 梨花여대·淑明여대등도 오는20일부터 3월초까지 각각 이같은행사를 갖는다。

마터호른北壁 또 정복

岳友會이후 눈보라로 4번째 도전끝에

부산 靑峰會 첫 冬季등반

대한산악연맹부산시지부소속 靑峰산악회(회장 金興秀·29·부산 釜山鎭區 凡田洞)가 지난12일 하오57분알프스의 마타호른북벽(해발 4、478m)등정에 성공했다고 16일상오 현지에서 국제전화로 대한산악연맹에 알려왔다。

마타호른북벽은 아이거북벽、그랑조라스북벽과함께 알프스3대북벽의 하나。지난80년7월과 8월 우리나라해외등반사상 최초로 岳友會회원들이 3大북벽을 차례로정복한뒤 이번 靑峰산악회 등반대원들이 2번째등정에 성공했으며 동계등반성공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등반대원들은 대장 金興秀씨와 鄭太熙씨 (28) 李正鎬씨 (27) 洪福光씨 (26) 등4명으로 지난달 23일과26일、2월등 3차례에 걸쳐 정산정복에 도전했다가 실한 눈보라등 악천후로 실패한후 대장 金씨와 鄭씨가 10일 새벽3시부터 4차례도전끝에 12일하오5시57분 성공한것이다。

◇동양의 개와 서양의개
주광옥 (성남시 상대원동 354의19)

◇한심한 골프선수
조기영 (동대문구 면목1동91의31호)

SEOUL '88

올림픽후원회 발기총회 취지문

SEOUL '88

1981년 9월30일 I.O.C. 총회에서 결정된 1988년 하계 올림픽 서울개최는 분단국이며, 개발도상국가인 우리모국 대한민국에 올림픽정신을 재 현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민족의 저력을전세계에 과시하고 민족웅비에 결정적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스포츠 제전이 아닐수 없다. 88년 올림픽의 서울유치는 인종, 국가, 종교, 정치를 초월한 전세계의 단결과 친선을 통해 인류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올림픽정신의 부활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국제적 지위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이다. 즉, 올림픽 유치는 발전하는 국력의 상징이며, 세계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차부를 북돋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민족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쾌거인 것이다. 올림픽유치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가져와 평화성취의 기운을 일으키고, 동구공산권및 비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모국은 선진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소식은 국내외의 우리동포에게 가슴 뿌듯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가져다 주었으며 세계로부터 우리의 국제적인지위와 국력을 인정 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카나다에 살고있는 우리 4만여교민사회에도 벅찬 감격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1988년도 동계 올림픽이 카나다의 칼가리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어 한국과 카나다 양국간의 거리감을 더욱 좁혀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교민도 한·카 양국관계 심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바로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국력신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며 우리 모국의 발전은 카나다 교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재 카나다 4만여 교민을 대표하여 우리는 모국에서 개최되는 88년 올림픽개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재 카나다 교민의 성원을 조직화 하기 위하여 가칭(재 카나다 교민 모국 올림픽 후원회)를 발기코자 하오니 뜻있는 많은 교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1982년 2월25일(목) 하오7시　장소 : 한 인 회 관

발기준비위원 : 황대연 장순채 이병권 차선겸 이창복 조영호 박인순

아시안게임 全種目 출전
400여명 매머드 選手團 구성

파견비 8억원을 승인
올예산 60억、施設에 13억
體育會 정기代議員총회
事務處 人力도 늘리기로

대한체육회는 16일 상오 체육회 강당서 8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열고 총규모 60억1천95만3천원의 82년도예산을 확정하고 오는11월 印度서열리는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상위입상을 겨냥、경기력향상을위해 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 체육회는 印度아시안게임 21개전종목에 4백명이상의매머드선수단을파견할 계획을재확인하고 8억8천3백여만원의 파견비를 승인했다.

◇16일상오 체육회강당서 열린 대한체육회 8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체육회의 82년도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7천여만원이 증액된것인데、曺相鎬체육회장은『82년도 예산은 88년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유치가 결정되기전에 관계부처의 협의를거쳐 확정되었으므로 앞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예산을 요청、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준비에 차질이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각가맹경기단체 대의원들에게 약속했다.

체육회는 88년 하계올림픽과 86년 아시안 게임 준비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로 설정、이를 실현하기위해▲체육인구의 조직정비강화、체육행정의 전문화▲각종목 대표선수들에대한 경기력 향상▲스포츠를통한 모범국민운동▲적극적인 국제스포츠교류를 추진키로 했으며 50여건의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한편 11건의 국제대회를 국내에 유치키로 결정했다.

올해예산의 주요지출내역을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개최를위한 스포츠시설비가 13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우수선수양성비 7억6백70여만원、印度아시안게임파견비 8억8천3백48만원、종목별경기대회 파견및 국제회의참가비 9억8천9백80만원등이다.

올예산의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가 50억9천3백38만1천원、자체수입 11억1천9백70만3천원、특별회계 1억9천7백86만9천원으로거의 국고보조에의존하고있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회의시작 1시간40분만에 끝났으며 대의원들은 88하계 올림픽 서울유치를 실현시킨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朴萬奎감사는 감사보고를통해 전문직 인력확보를 비롯한 시정사항을지적했다. 朴감사는 ①현사무처의 인력이 크게 부족、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②전국 체전서의 불상사를 근절키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③소년체육대회에 국민교양구를 추가시키도록하며 ④각종 스포츠용기구에대한 국산화를 촉진하고 정부차원서의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自由泳800m 世界新

【모스크바15日AP=聯】 남자수영 1천5백m와 8백m자유형세계기록보유자인 蘇聯의 블라디미르·살니코프는 지난14일 모스크바올림픽수영장에서 벌어진 蘇聯오픈수영대회 8백m자유형에서 7분52초83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고 蘇聯관영 타스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살니코프는 3년전 자신이 세웠던세계기록인 7분56초49를약4초가량단축、자신의세계기록을경신했다.

80년도 모스크바올림픽수영부문2관왕(1천5백m·8백m자유형)인 살니코프 선수는 1천5백m자유형에서도 14분58초27로 세계기록을 갖고있는데이기록은 78년이래깨어지지않고있다.

잠옷바람 아파트脫出 소동
中部 地震 窓門덜커덩 家具도 흔들

서울汝矣島·盤浦·永東지역등 아파트밀집지대에서는 14일밤 발생한 지진으로 놀란 시민들이 아파트를 뛰쳐나오는등 소동을 빚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강도 3의 약진이긴했으나 발생시각이 휴일이고 시민들이 대부분 잠자리에들거나 휴식중인 심야이어서 지각의진동과 함께 전등、가구가떨리는 감도를 뚜렷이 느낄수있었으며 진원지가 가까운 여의도·반포지구의 고층아파트 밀집지대주민의 민감도가 더했다.

汝矣島아파트에사는 金모씨(35·회사원)는 『TV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진동과함께 유리창과가구가 덜컹거려 지진으로 직감、가족들을 한때 대피시켰고 회사원 朴모씨(43)는 『침대가 흔들릴정도였기 때문에 불안해 밤새 잠이 오지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서울道峰區雙門洞103 지하철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벽에 금이 가고 龍山區元曉路2街 국민은행 元曉路지점등 일부 건물에 정전이 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기상대·신문사·방송국에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15일 낮뉴스를듣고 서울지역에 지진이 발생한것을확인、여진이 또발생하지 않나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지난78년 강도5의 洪城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있는데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서울에서 강도 3의 지진이 발생하자 15일 상오 출근길 시민들의 화제가 온통 지진 이야기뿐이었다.

지진으로잠에서 깼다는 李모씨(水色洞·회사원)는 『옛 기록에도 한반도에 큰피해를 준 지진기록이 적지 않다』고 지적、급한 템포로 팽창해가는 서울의 도시건설규모를 생각할때 본격적으로 지진연구를 해야할 시기가 된것같다고 말했다.

旅券업무 市道 조기移讓
金외무차관、韓佛관계 계속발전중

金東輝외무부차관은 16일 『오는 85년초부터 지방行政廳으로 이양할 예정이었던 여권발급업무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차관은 이날하오7시 MBC와의 對談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대신 국민각자가 不要不急하고 필요없는 여행을 스스로 자제할줄 아는 협조가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당출신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된이후 여러가지억측이 있었으나 韓佛관계는 대단히 만족스런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21일부터 시작될 韓佛外相회담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했다.

教員隣近校겸임제
閣議 任用令개정

국무회의는 16일 교육공무원任用令을고쳐 各級학교교원이 직무내용이비슷한 併設 또는 附設학교、인근학교의 교원을 겸임할수 있도록하고 職制나 학교가 신설또는 폐지된때에는 2개월이내에 보직없이 근무할수 있게했다.

개정령은 또 學藝·公安및 행정계통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비슷한 전문대학 이상의 人文·社會과학계교육공무원간에 서로 兼任할수있도록하고 정부투자기관임직원과 직무내용이유사한 교육공무원간에도 2년이내에 겸임할수있도록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淸白吏賞수상 교원이나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교원、創案賞(銅賞)이상을 수상한 교원、명예퇴직교원등은 특별승진할수 있게하는 한편 징계처분을받은후 훈장이나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경우、또는 [illegible]賞을 받은경우 징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의 절반을 단축할수 있게했다.

經協 조기타결一致
朴經協會長밝혀

【東京15日東洋】 한일양국의 경제단체장들은 15일낮 東京시내 東京會館에서 간담회를갖고 현재 양국정부간에 진행되고있는 60억달러 경협교섭이 조기타결되어 양국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는데의견일치를보았다고 朴泰俊한일경제협회회장이 간담회후 발표했다.

金正日40회 生日
朝總聯서大會

【東京16日東洋】 재일조총련은 16일상오 도오꾜오(東京)시내 조총련문화회관에서 金正日의 40회생일을 축하하는 중앙대회를 개최했다.

信永基金 海外연수
언론인2명 選拔

寬勳클럽 信永연구기금은 15일 언론인해외연수 장학생으로▲金曉雄한국일보경제부차장▲李濟薰중앙일보 경제부차장등 두기자를 선발、오는9월1일부터 1년간 美國에서 인문과학및 매스컴이론을 연구토록했다.

金기자는 美스탠퍼드大에서 李기자는 美미시간大에서 각각 수학한다.

醫學화제
지렁이製劑가 수출된다
60만弗어치 美齒科병원에
고등어·멸치보다 칼슘·燐分등월등

지렁이(土龍)에서 뽑은 엑스제제(土龍精)가식품으로 미국에 수출된다.

한국土龍산업주식회사(대표 金守鍾)가 올해 美캘리포니아州의 이스턴·패밀리치과병원에 60만달러어치의 土龍精을 수출키로 한것.

지렁이는 예부터 土龍、地龍、寒蚓이라 해서 한약재로 널리 사용해 왔다. 지렁이가 해열、진정、이뇨、혈압강하작용을갖는 한편 단백질을비롯、지방、칼슘、인、철분과 비타민A와 B1·B2·B6·B12등을 풍부히 갖고 있기 때문.

최근 토룡탕이 정력강장식품으로 주목되고 있는것도 이때문. 실제로 일본식품분석센터가 분석한 지렁이의 성분은 고등어나 멸치에 비해 영양가가 월등 많은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1백g당 지렁이는 조단백 12·4%、지방2·5%、탄수화물1·8%、회분1·0%、칼슘 2백4㎎、인2백11㎎、철분17·9㎎으로 고등어와 멸치에 비해 조금 떨어지나 회분은 비교가 안될정도로 단연 많은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타민A와 B1·B2·B6·B12도 월등히 많다.

한국토룡산업은 이를 엑스로 精製、지렁이가 갖는 여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한편 성분함량을 단백질 38·7%、지방16·1%로 높이는가 하면 칼슘도 계란의 5배、철분은 계란의 25배로 높였다는것.

臺灣、中共팀 參加허용
世界소프트볼大會 3일내 초청장 발부
포터事務總長과 4일간 협의끝에 公式발표

【臺北16日AP=聯】 대만은 오는 7월 臺北에서 개최되는제5회 세계여자 소프트볼 선수권대회에 중공이참가하는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16일공식발표했다。

돈·포터세계 소프트볼연맹(ISF)사무총장은 4일간에 걸친대만소프트볼협회장 胡·밍장파의 협의를거친후가진 기자회견에서 7월 2일부터 11일까지 臺北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발표하고중공을 포함한 46개 ISF회원국모두에게 3일안으로 초청장이 발송될것이며 초청장을 받은 회원국은 15일내에 참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터사무총장은 중공의 참가여부에 대한 질문에『나도 소프트볼에만 관심이 있을뿐 정치에는 관심이없다』고 말하고 국기와 국가 사용도 주최측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중공측은 오래전부터 臺北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는데 이같은 대만측의발표에 아직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않고 있다.

만일 중공측의 臺北소프트볼대회참가가 이루어진다면 49년 중공정권수립이후 최초로대만에서열린체육대회에서 중공팀이경기를벌이게된다.

"연내 핸드볼體育館 짓는다"
金協會長 實業팀 육성도 지원

◇金宗河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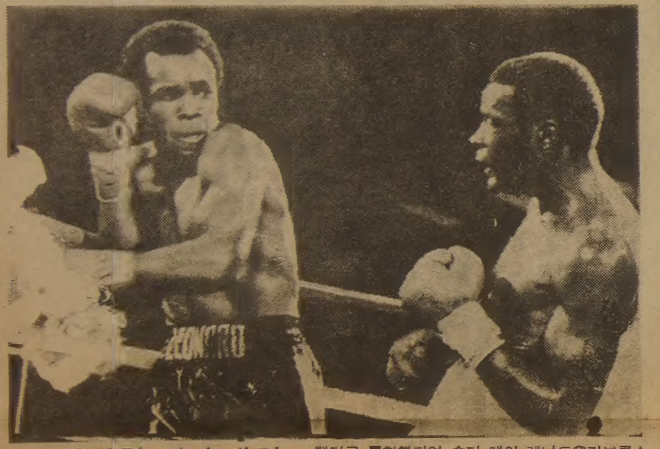
金宗河대한핸드볼협회장은 여자대표팀이 모스크바 올림픽예선서 세계6강에 진입한데 이어 남자대표팀이 쿠웨이트국제핸드볼대회서우승、아시아정상권을 차지한데 힘입어 핸드볼인구를 확대키로하고 그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내에전용체육관을건립하는 한편 실업팀의 창단을추진、경기인구를 확보하는외에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국민학교대회의 창설등 의욕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金宗河회장은 고려합섬 안양공장에 전용실내체육관을 국제규격에 맞추어 건립하기로하고 설립을위한 기본계획을 마련、관계기관과 절충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안양체육관은 대표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쓰일뿐만아니라 사내 활동、주민들의 건강을위한 훈련장으로도개방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金회장은 우선 陸士체육관을 대표팀 훈련장으로 사용할수있도록 陸士측과 절충중에있다고 말했다.

여자핸드볼이 세계6강에 끼고 남자가 아시아 정상 수준에 올랐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한단계 올라서야 메달이 가능하다는것이 金회장의 진단이다. 특히 여자주니어팀은 작년10월 몬트리올서열린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서 세계4강에 올랐는데 현실대로가면 이러한 위치를 고수하는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金회장은 말하고있다.

금년 12월1일부터는 헝가리서 세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이대회본선에 진출할 아시아지역 예선전은 오는5월 열린다. 한국이 지역출전권을 따내는것은 무난할것으로 보이고있으나 헝가리 세계대회서 한국여자의 정확한 수준을 가름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金회장은 이대회서 좋은성적을 거두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서는 동메달에 진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벽한 攻守패턴 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左)가브루스·핀치에게 강한 레프트훅을 넣고 방어자세를 취하고있다。【르노(美네바다州) 15日AP電=聯】

레너드、3回 TKO로 방어
世界웰터級 挑戰者핀치 力不足

【르노(美네바다州)16日AP=聯】 프로복싱 WBA·WBC 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는 16일낮(한국시간) 이곳에서 거행된 타이틀전에서 도전자 브루스·핀치를 3회 TKO로 물리치고 챔피언타이틀을 방어했다.

지난해 9월 토머스·헌즈와의 웰터급 통합타이틀전에서 승리한 이후 처음 링위에 오른 레너드는 이날 경기에서 강력한 좌우훅을 구사하며 핀치를 공략、2회전서 두차례 다운을 빼앗고 3회 1분50초만에 주심의경기중지로TKO승을거두었다.

세계권투평의회(WBC) 랭킹3위에 올라있는 핀치는 2회전에서 레너드를 중립코너에 몰아넣고 한때 맹렬한 공격을 벌였으나 현격한 실력차이를 드러내 강타를 맞고 두차례 다운됐다.

말썽복싱聯등 산하協會개입
體育會서

대한체육회는 정기대의원총회의 일정도 잡지못한채표류하고 있는 복싱연맹(회장 任彥彬)이 단시일내에 총회를 소집치않을경우 사고단체로 처리、직접 개입하여 연맹기능을 정상화시킬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아시안게임과 올림픽메달박스 종목인 복싱이 집행부내부의 문제로 정상기능을 상실하고 있는것을 더이상 묵과할수없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개최하지 못할경우 체육회의 개입은불가피하다』고말했다.

한편 시즌이 끝나지 않은 동계종목을 제외한나머지 경기단체 가운데 이날 현재 총회를 열지못한 단체는 탁구와 필드하키로 탁구는 17일、필드하키는 22일로 총회일정을 잡고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도·조정·유도·레슬링등 일부 경기단체들은 대의원총회를 끝냈음에도 불구、새 집행부구성에 난항을 거듭하고있어 본격적인 시즌오픈을 앞두고 불안감을 씻지못하고있다.

체육회는 이들 경기단체를 포함한 모든 경기단체가 늦어도 이달중에는 정상기능을 회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裵基兌등 4명파견
世界J氷上대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28양일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리는 82년도 세계남녀주니어 스피드 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유망주 裵基兌(서울高)등 남녀선수 4명을 파견키로 했다.

韓國은 지난 76년대회(이탈리아)에서 혼자 출전했던 李永河가 3천m및 5천m에서 현 세계랭킹 1위인 에릭·하이든(美國)을 제치고 세계주니어 신기록으로 1위에 올라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선수단
▲단장=黃義安(연맹총무이사)▲코치=朴昌燮(崇義女中교사)▲선수=裵基兌(서울高)金炯元(京畿高) 李京子 李連珠(裕鳳女高)(一東[illegible]高)

마라톤 强化委員
6명 새로선임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 강화위원회(위원장 成基鎔)는 16일 崔忠植 宋吉允 李元馥 韓在德 李昌薰 李相敦씨를 강화위원으로 선임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남자들을 이해하지못하겠어!" "남녀사이에 공통점은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야,있어" "어떤거지?" "우리 역시 너희를 여자를 이해못한다구!"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화,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조규혁
종합보험
●차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 국 일 보 발 송 부

京華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 파트 타임 헬퍼구함.
서쪽지역. ☎769-5956

가게 매니저 구함.
☎449-1871 Mr.권

가게 캐쉬어 또는 헬퍼 구함
☎ : 651-3365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금, 토, 일 오후 4시~11시까지, 로렌스×더프린지역)
☎ : 239-7267 MRS. 신

레스토랑 남자 헬퍼구함 :
☎ : 486-1112
프랑소와 OR MR. 정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접시 닦을 분과 주방일 도우실 분
한 국 관 ☎ : 536-0290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AVE.
☎ : 656-3020

매주 일요일 FULL TIME 가게 헬퍼구함
킹스톤×빅토리아 파크
☎ : 699-9909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있는 캐쉬어구함
제랄드×콕스웰
☎ : 465-6885 미스타 유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구 직

입주해서 아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50세.
☎ : 438-7198

아기 정성껏 보아 드립니다.
346 WESTON RD. (ST. CLAIR)
☎ : 763-3289 장 영 동

매매및 양도

①그로서리(주매상 $5,000)
②써브·마린+건물($135,000)
③갤러리(영×블루어)
☎ : 481-3443(B)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Realtor.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가정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크리스티 × St.Clair)
☎ : 656-5358

이윤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4,000 관심있는분 직접 내방바람.
250 Sheppard Ave. W.

한글타자기 구합니다.
☎ : 364-2385 MR. 김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WHITBY북쪽지역의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1-655-3831, 또는 서신연락처
P. O. BOX 101 BROOKLIN ONT. LOB 1CO

아파트 안에(500여호)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 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1-519-453-0420

다운타운—하이 볼륨 그로서리 스토아
현매상, 월 $50,000이상. 좋은 리스.
아스킹 $150,000 ☎535-0028(Mr. Kim)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A. E. LEPAGE LTD.
☎ : 741-9170 미세스 우

①카페테리아(테이크 아웃 비지네스)
주5일간 오픈, 주매상 : $6,000
가격 : $230,000, 리스 : 12년

②SMOKE & GIFT SHOP.(전망좋고 시간짧은 사무실 빌딩 안)
주5일간 오픈, 가격 $75,000
리스 : 6년+5년
여자 혼자서도 운영 가능

③SUBWAY통로에 위치한 COFFEE, NUTS, CANDY SHOP
가격 : $42,000, 월매상 : $7,000~$9,000
리스 : 3년+5년+5년

④그로서리 스토아(SHOPPING CENTRE내)
년매상 : $840,000, 가격 : $330,000
리스 : 1990년

성업중인 스토아 급매합니다
아스킹 $79,000+스탁
☎ : 633-7222 다운스뷰 에어리아

3베드룸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밀크스토아 급매
주매상 $3500, 리스 3년반+옵션5년,
2517 Eglinton Ave. W.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 $40,000
☎ : 1-579-4507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집세놓음(스카브로 동부지역) : 3 베드룸 방갈로, 차고 있음, 지하실 꾸며져 있으며 화장실2개, RENT $400 +하이드로(월), ☎ : 822-4480

DUPONT +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견적, 공사감독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섭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6 김 진 환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GGA ☎ : 273-7300 이 명 세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 업 인 협 회 : 76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무역진흥공사 : 977-8784
●K A L : 862-8250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2ND CLASS MAIL NO. 5248